OLP JOURNAL

Opinion **L**eaders **P**rogram 저널 **April** **VOL.20**



발간사
OLP 21기 회장 홍재식

신년사
OLC 7대 회장 어진

OLP Special
OLC 송년회가 확 변했다 호텔에서 학교로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Never long, never in~!
2018 연합골프대회 참가기
여행은 즐겁다
카르멘
OLP 22기는 남도의 만찬을 택했다
점심시간에 세미나를 오찬학술세미나

OPINION LEADERS CLUB
SOGANG UNIVERSITY

안국약품(주)

피곤한 몸
침침한 눈



피곤한 몸, 침침한 눈이 **피로신호**를 보낼 때

토탈비타민
토비콤골드



용법 / 용량 : 1일 1회, 1회 1정 씩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2019-1469-001900

MARIO Outlet

마리오 아울렛

아시아 최대 도심형 아울렛
마리오아울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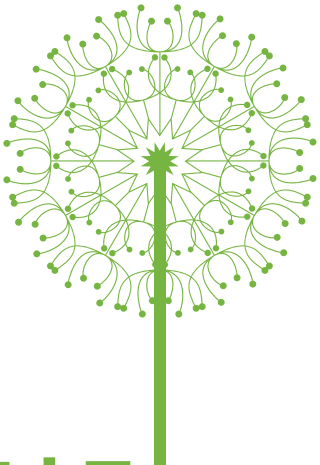
마리오아울렛은 국내 · 외 유명 패션브랜드부터 가구, 전자제품, 게임존, F&B까지
750여개 브랜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고품격 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마리오아울렛 | www.mariooutlet.co.kr

마리오몰 | www.mariooutlet.com

Global Outsourcing Leading Company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MP(Manufacturing Production) / FM(Facility Management) / Security / Global Business /
LS(Logistics Service) / Silver Care Service / GreenS Service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기업

Samkoo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 타워 동관 6F
Tel. 1588-2239, 02-828-3939 Fax. 02-816-2669
http://www.samkoo.com

OLP JOURNAL

Opinion Leadership Program







'OLP(Opinion Leaders Program)'는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기업체 간부와 전문직 중견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제, 경영전문과정입니다.

〈OLP JOURNAL〉은 'OLP' 교육을 수료한 멤버들이 경제, 경영 현안을 중심으로 기업인과 언론인들의 상호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작하는 저널입니다.

발행인 어진
발행처 사단법인 Opinion Leaders Club (OLC)
발행일 2019년 4월 / **통권** 제 20호
등록번호 서울 사 01993 / **편집장** 안미현
위원장 이세정 / **부위원장** 허원순
고문 정세용 · 이종재 · 이의춘 · 신동욱 · 정석구
위원 김광기 · 김석 · 김홍익 · 이용문 · 이민종
OLC 사무국 02-3289-4214
기획 · 제작 ㈜성우애드컴 www.swadcom.co.kr
02-890-0900

04 발간사 홍재식
06 신년사 어 진

OLP Cover Story

10 집중해부 - OLC 여성파워 김 석

OLP Special

16 OLC 송년회가 확 변했다 호텔에서 학교로 이용문
18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이민종
22 Never long, never in~! 강주엽
24 2018 연합골프대회 참가기 김 석
28 여행은 즐겁다 허원순
32 카르멘 정지철
36 OLP 22기는 남도의 만찬을 택했다 이광엽
38 점심시간에 세미나를? 오찬학술세미나 사무국

OLP 원우의 우리 기수 자랑

42 더는 '도끼질' 할 수 없는 스타 벤처기업인 안미현

OLP가 보는 세상

46 같이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되려면 김상민
48 전통과 문화로 세대간 융복합,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판정
52 패널 토론자에 기자 역할까지 넘기는 시사프로 홍승일

OLP Essay

54 몸으로 바퀴를 굴려나가는 일은 복되다 이상철
56 아프니까 살아 있는 것이다 문규선
58 전설의 우담바라 목격, 과연 행운이 올까 고철종

OLP Travel Essay

60 노르웨이 자유 2018 안경호
64 뉴질랜드 여행기 박상주
68 다카마츠 여행기 임태형
72 일본 소도시 여행의 즐거움 김홍익
76 형제의 일본여행기 유복환

OLC News

80 OLC 회원동정
81 OLP 23기 입학 안내

OLP를 말한다

82 OLP 22기 회장 김길수
83 OLP 22기 사무총장 윤영두

발간사

OLP 과정을 통해 인연을 맺은 원우님들 서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로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글. 홍재식
OLP 21기 회장

2019년 OLC 저널 발간사를 올리는 순서가 21기라는 연락 받고 나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마감일자가 다 되어서야 두서없이 끄적거려 본다.

사람들은 지금 내 나이가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나이라는데, 나는 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는 욕심을 부린다. OLP 과정을 통해 만난 원우님들 그리고, OLC 모임에서 훌륭한 분들과의 만남은 이런 욕심과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한 기회였다고 본다.

나는 샐러리맨으로서 31년간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퇴직한 행복한 사람이다. 대기업 입사, 해외주재원 생활, 그리고 잦은 해외 출장 덕분에 50여개국을 다녀 보았고, 회사 CEO로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는 욕심쟁이다. 내가 아쉽다고 하는 이유는 누릴 것 다 누리고 Resource는 다 써버려 남겨줄 것이 별로 없는 우리 세대가 후배와 후세대에게 느끼는 미안함 때문이었다.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나온 회사 밖의 세상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간 너무도 회사와 내 앞만 보며 달려 왔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지난 1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OLC 모임에서 원우님들의 열정과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많이 보았고, 동시에 OLP 총동문회가 해왔던 여러 활동들과 서강대학교에 대한 기여는 나에게 신선한 감동이었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세대간의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국가간의 갈등 이 모두는 과거에도 존재했겠지만, 지금은 각자들이 자기 입장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가시화되고 더 큰 것처럼 보여진다. 갈등의 해법은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무엇보다도 베풀 수 있는 자들의 나누려는 마음이라고 본다. 나부터라도 작게나마 나눔을 실천해야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OLP 총동문회가 하고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이 될 것이다.

오늘도 날씨가 포근하니 어김없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핸드폰에 뜬다. 예전의 겨울 모습은 어디 간 것인지?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포근한 날씨보다 추운 날씨가 더 좋다. 우리나라 겨울 날씨가 삼한사온에서 삼한사미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왠지 씁쓸한 느낌이다. 이렇게 탁한 공기도 우리가 만들었으니 감수해야겠지만 후세들에게는 미안하다.

2019년에도 어김없이 경제 전망 전문기관들은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만만치 않게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매년 비슷하게 반복하는 분석이라 별로 믿지는 않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경기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전망보다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OLP 회원님들의 의견 교환과 협력이 훨씬 더 유용하리라고 본다.

OLP 과정을 통해 인연을 맺은 원우님들 서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로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회원님들 모두 본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LP**

신년사

OLC 원우님들의 애정과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글. 어진
OLC 회장

謹賀新年

OLC 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OLC 원우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도와주시는 회장단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국 기준 금리 인상, 중국 및 신흥국의 경기 둔화, 강대국 간 무역 갈등 및 국내 경기의 침체 국면 지속에 따른 투자 위축, 고용 불안 등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혁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약화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반면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3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이로써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계 일곱 번 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각계각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신 OLC 원우님들의 공로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창의와 혁신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해는 없었고, 또한 더 힘들지 않았던 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과거의 폐단을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항상 그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이에 2019년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임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닭이 알을 깔 때에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하여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하여지므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데, 어미 닭이 너무 밖에서 쪼아 깨뜨리면 병아리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또 어미 닭이 쪼아 주지 않으면 병아리가 알을 깨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각 현장에서는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의지로, 우리 OLC 원우님들은 밖에서 이끌어주는 어미닭의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OLC 원우님들,

최근 들어 가장 화두로 떠오른 리더의 덕목은 바로 '소통과 공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 백종원 대표 그리고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까지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 뒤에는 항상 '소통', '공감'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OLC 원우님들이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 주신다면 개인과 기업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해 OLC 원우님들의 애정과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OLP**

The Banker誌 (더 뱅커지)
'2018년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선정

우리금융그룹



2019

우리은행 창립

120 주년

1899



고객과 함께 120년 우리의 미래

1899년, 민족자본으로 시작한 우리은행
120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세계금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한눈에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

우리은행

OLP Opinion Leaders Program

Cover Story

집중해부 - OLC 여성파워

김석 OLP 12기

집중해부 - OLC 여성파워







글. 김석
OLP 12기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서강대 오피니언 리더스 클럽(OLC)은 한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만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원우들의 얼굴을 볼 기회가 많다. 그 중에서도 요즘 매스미디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원우는 최현수 원우(12기)인 것 같다.

첫 여성 국방부 대변인인 최현수 원우는 2018년 12월 시작된 '한일 초계기 갈등'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TV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2019년 1월 24일 그가 발표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다시 봤다.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또박또박한 발음과 여유 있는 모습에서 경륜을 느낄 수 있었다.

1988년 10월 국민일보에 입사해 국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생활과학부 · 경제부를 두루 거친 최현수 원우는 1995~1997년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첫 여성 국방부 출입기자로 이름을 올린 최현수 원우는 2004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10개월)을 수료했다. 이후 2009년 첫 여성 군사전문기자, 2017년 12월 첫 여성 국방부 대변인이 되면서 '첫 여성'의 기록을 이어갔다. 오랜 경험과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군대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최현수 원우를 볼 때마다 필자가 그와 OLP 동기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진다.

'첫 여성'의 기록을 세운 원우는 또 있다. 14기의 이노공 원우다.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 원우는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발탁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차장검사가 됐다. 1948년 서울지검이 개청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원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범죄 전담 수사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조사 1 · 2부 등을 관할한다. 이 원우가 관할하는 강력부에는 조직범죄수사과와 마약수사과도 있다. 사건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 위험한 사건들을 이 원우가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OLC 여성 원우들이 한국을 호령하고 있다. 2002년 가을 시작해 벌써 22기를 맞아들인 서강대 OLC의 경륜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원우들이 고루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 원우들의 활약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초반에는 여성 CEO들이 OLC의 '여풍'을 이끌었다면, 요즘은 언론계 원우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5기, 여성 CEO들이 OLC에 바람을 일으키다

2002년 9월 27일 OLP(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 1기에

입학해 2003년 1월 OLP 첫 졸업장을 받은 여성 원우는 4명이다. 이들 중 3명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3명 모두 늦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5년 동안 중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다가 1997년 보석디자인 업계에 뛰어든 이영미 세미성 사장이 맏언니다. 토종 주얼리 브랜드인 세미성(世美成)을 만들었다. 여동생인 디자이너 이영주씨의 이영주콜렉션과 함께 패션&주얼리쇼도 열고 있다. '2017 중국 국제 보석전', '홍콩 보석전 2018'에 참가하는 등 해외로 발을 넓혀가고 있다.

오현수 원우는 국내 최고급 무빙컴퍼니인 ㈜케이티엠에스(KTMS)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이 회사에 입사한 오 원우는 1994년 창업자가 갑자기 별세한 뒤 유족들의 부탁으로 경영을 맡게 됐다. 2010년엔 경기 파주 출판단지 인근에 문서 서류보관용 창고를 신축, 보관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현주 ㈜굿어스 인터내셔널 대표는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다. 김 원우의 회사에서는 개 · 고양이를 위한 핸드메이드 샴푸 바, 천연향으로 만든 공간향수 등 친환경 제품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일보 출신으로 1기의 유일한 여성 언론인이었던 남대희 원우는 재정경제부 홍보기획팀장을 거쳐 삼성그룹으로 옮겼다. 현재는 삼성화재 전무로 일하고 있다. 언론인, 공무원, 기업 임원으로 모두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다.

2기에는 WEC 선교사로 일하는 김효수 원우, 휠링 대표인 이미경 원우, 문화체험 영어전문업체인 ㈜코리아브레인 대표이사를 지낸 양승옥 원우가 있다. 이미경 원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기 회장을 맡아 2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3기에는 김금희 · 이종선 · 홍은주 원우가 있다.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와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다 2007년 내촌목공소 서울을 오픈했던 김금희 원우는 갤러리 압생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종선 이미지컨설팅 대표는 이미지 컨설팅(PI)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홍은주 원우는 MBC에서 경제부장 · 논설주간 등을 거쳤다. iMBC 대표이사를 지낸 뒤 한양사이버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홍 원우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50주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4기에는 김수영 · 이미숙 원우가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MBC에 입사, 경제전문 기자로 명성을 떨치던 김수영 원우는 현재는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 이미숙 원우는 신원데이터넷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1990년에 설립된 신원데이터넷은 인문사회 · 경영경제 · 과학기술 · 특허 · 의약학 등 학문 전 분야를 망라하여 e저널, e북, 데이터베이스를 국내 500여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종합 정보서비스 회사다.

5기는 김혜정 · 소선하 · 현명숙 · 채경옥 등 4명의 여성 원우가 활약하고 있다. 5기의 맏언니격인 김혜정 원우는 실험분석 자동화 시스템, 우정자동화 시스템, 공장자동화 시스템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삼경하이텍을 운영하는 여성 벤처업계의 대표주자다. 소선하 원우는 월급쟁이로 OLP에 왔다가 OLC 멤버가 됐을 때는 자신의 회사를 창업, 대표이사가 됐다. 칸 국제광고제 파이널리스트 수상, 아시안 그래픽 어워즈 런치박스 파이널리스트 수상 등 탁월한 능력을 자랑하며 ㈜쏘크리에이티브를 이끌고 있다. 중앙일보 팟찌닷컴 칼럼니스트로 필력도 자랑하고 있다. 5기의 유일한 여성 언론인으로 제1회 올해의 여기자상(2006)에 빛나는 채경옥 원우는 2018년 매일경제신문을 떠나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2년만에 창업한 현명숙 룻츠커뮤니케이션 대표는 2013년 제40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모범상공인 부문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외환은행 · 대한항공 · 마스터카드 등의 대기업 브랜드 디자인과 네이밍, 홍보물 기획 디자인 사업을 진행했다.

6~10기, '여성 파워'의 깊이를 더하다

6기에는 고희경 · 남희정 · 양윤희 · 신영숙 원우가 포진하고 있다. SBS에서 최초로 여성단독앵커 기록을 세운 고희경 원우는 현재 SBS 보도본부 뉴스토리팀장을 맡고 있다. 남희정 원우는 남편인 8기 전희준 원우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제시앤코의 부사장이다. 여성의류 '제시뉴욕' 브랜드로 알려

진 회사다. 이화여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맥길대학교에서 MBA를 받은 양윤희 원우는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홍보 임원을 지낸 뒤 휴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신영숙 원우는 용성코리아(중국) 대표이사다.

7기의 유일한 여성인 박선영 원우는 OLC와의 인연이 남다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장녀인 박선영 원우는 OLP를 수강하던 해 12월 평생 반려자를 만났다. 현재 영성경영연구소 '더 하우' 대표를 맡고 있다. "정보혁명 또는 지식혁명인 제3의 물결로 큰 변혁을 겪었다면 미래는 영성(靈性)이나 지혜를 통한 제4의 물결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다.

8기에는 머니투데이의 권성희 원우, IS동서의 권지혜 원우, QPR자살예방연구소 연구원인 조윤정 원우가 있다. 1993년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했다가 1999년 KTB에서 잠시 홍보를 했던 권성희 원우는 2000년 머니투데이에 입사, 언론계로 돌아왔다. 현재 머니투데이 콘텐츠총괄부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권혁운 IS동서 회장의 장녀인 권지혜 IS동서 전무는 OLP 재학 당시 I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에일린의 뜰'을 론칭해 큰 성공을 거뒀다. 권지혜 원우는 '비데만드는 여자'란 필명으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며 국내 비데 시장을 키우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80대 초중반의 골프 실력을 자랑하는 조윤정 원우는 중앙심리부검센터 팀장으로 일한 뒤 QPR자살예방연구소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9기에는 여성 원우가 3명이다. 이서윤 원우는 종합인력관리 전문업체인 아람인테크를 운영하고 있다. 2002년 설립된 이 회사는 3000여명의 관리인원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2015년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한 아람인테크는 2~3년 안에 베트남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시장조사 업체 메트릭스의 부사장인 나윤정 원우는 리서치 업계에서는 유명인사다.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통계청과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약 10년 간 통계업무를 담당한 뒤 2000년 메트릭스에 입사한 나윤정 원우는 현재 메트릭스의 리서치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국민일보 손영옥 원우는 문화부장을 지낸 뒤 미술 · 문화재전문기자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김달진미술연구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미술인인명사전'(2018)에도 이름을 올릴 만큼 미술계에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10기의 홍일점인 안미현 원우는 1991년 서울신문 입사한 베테랑 언론인이다. 경제부장, 산업부장 등 주요 부서 부장을 두루 지냈다. 현재 OLP저널 편집장을 맡고 있다.

11~15기, '첫 여성'의 기록들을 쓰다

11기의 유일한 여성원우인 정은주 원우는 유통업체인 ㈜정주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정주는 글로벌 B2B 무역 및 마케팅 전문기업이다. 기업 VIP고객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판촉물을 유통하며 성장하고 있다. 정은주 원우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을 일컫는 '메세나 활동'에도 열심이다.

10기와 11기에 1명씩에 불과했던 여성 원우는 12기에 다시 확 늘었다. 언론계에서는 국방부 첫 여성대변인이 된 최현수 원우와 함께 윤영미 원우가 들어왔다. 한겨레신문에서 30여 년 동안 소비자경제팀장, 미디어팀장 등을 지내고 서울YMCA 소비자위원, 서울YWCA 소비자환경부 위원,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 식품안전정책위원 등의 활동을 한 윤 원우는 2018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윤 원우는 공동대표 겸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상근하며 정책과 이슈 등 사업을 총괄한다. 김수경 원우는 여러 패션업체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패션전문 홍보대행사 다우를 운영하고 있다. 홍보업계 여성파워의 상징적인 인물인 제일기획의 정혜림 원우는 최근 홍보팀장을 떠나 영상컨텐츠를 제작하는 SBC본부의 그룹장으로 옮겼다. 휘하에 있는 6개의 팀을 챙기느라 최근 침식을 잊고 있다.

13기에는 김진숙 · 노진선 · 은영미 원우가 있다. 검사 출신인 김진숙 원우는 특수부(광주지검)에 발령난 첫 여검사로 유명하다. 이후로도 대검찰청 첫 여성 부대변인, 지방검찰청(전주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등을 맡으며 검찰에서 여성의 활동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검찰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노진선 원우는 '상상이상 공간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디자인그룹' ㈜에프도어즈의 대표다. 주진모, 정보석, 엄정화, 김민선, 유호정, 손담비, 신애 등 대한민국 유명 연예인들의 보금자리를 재창

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MBN 보도국의 은영미 원우는 사회2부장, 국제부장 등을 거쳐 사회1부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차장검사인 이노공 원우가 있는 14기에는 여성이 8명에 달한다. OLC의 유일한 여성 간사장인 김경아 원우는 JWL 이사이다. 11기 김형일 원우와 함께 '남매 원우'로도 유명하다. 오빠와 함께 교육 컨설팅 업계에서 오래 일했다. 강현숙 원우는 탈모 두피 전문기업 ㈜에스테라코 대표이사다. 강현숙 원우는 한국연합봉사단이 주관하는 2013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박정선 원우는 애플IMC미디어㈜ 대표다. 이 회사는 간접광고 시행 1호 대행사로 유명하다. 이주연 원우는 각 지역의 특산품 생산업체와 협업해 내고장 수익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아이두비의 전무다. 웅진홀딩스 상무를 지낸 이정희 원우는 ㈜아이리치코리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14기에는 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을 지낸 이귀영 YTN 감사팀 감사위원, 이명희 국민일보 종교국 부국장 등 베테랑 여성 언론인도 포진하고 있다.

15기 역시 쟁쟁한 여성 원우가 4명 있다. 서지영 대명리조트 컴퍼스디자인팀 팀장은 미래 대명그룹을 이끌어갈 후보 중 한 명이다. 신경훈 원우는 닥터스킨코리아 대표이사다. 닥터스킨코리아는 미국 소재 줄기세포연구소에서 자체 배양 기술로 생산된 배양액을 사용한 줄기세포 성장인자 배양액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다. 닥터스킨코리아의 브랜드 지에프코스(GF cos)는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화장품(줄기세포 성장인자 배양액 화장품) 부문 1위에 올랐다. 양영호 원우는 전세계적으로 임원급 및 CEO 리크루팅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NGS글로벌의 대표이사다. 육해실 ㈜대영 대표이사도 이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16~22기, 여성 언론인·홍보맨들이 빛을 발하다

16기에는 김명희 · 김영희 · 박소영 · 배수정 원우가 있다. 김명희 원우는 여행, 와인, 보석, 외식업, 화장품, 국제 전시 등 각 분야의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홍보업무 및 마케팅, 이벤트를 대행하고 있는 시소커뮤니케이션즈를 이끌고 있다. 김영희 원우는 FKI미디어 대표이사를 지낸 뒤 서적 출판업체인 ㈜와이에치미디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박소영 중앙일보 피플데스크와 배수정 CJ오쇼핑 홍보실 팀장도 이들과 함께 한다.

17기에는 백성욱 원우와 '남매 동기'로 잘 알려진 백미소 ㈜한국직업개발원 총괄이사가 있다. 한국직업개발원은 NCS 기반 취업 · 직무능력 전문교육기관이다. 기업인으로는 윤성아 SK플래닛 제작3본부 ECD(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랑숙 KB국민카드 부장이 있다. 언론인으로는 한보경 KBS 경제부장, 전경하 서울신문 경제부장이 있다. 전경하 원우는 언론인들의 연구 친목 단체인 관훈클럽의 제66대 임원진으로도 일하고 있다. 한보경 원우는 2004년 이후 14년 동안 남성 기자들만 맡아오던 KBS 경제부장에 지난해 발탁됐다.

18기에는 '첫 여성 홍보실장'들이 포진하고 있다. 박현숙 원우는 세계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2001년 예금보험공사(예보) 홍보팀장으로 옮긴 뒤 2014년 예보 첫 여성 홍보실장에 올랐다. 최근 저축은행관리부장으로 옮겼다. 김수영 원우는 2018년 신한금융투자 홍보실장으로 승진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여성이 본사 홍보실을 이끄는 것은 김 원우가 처음이다. 윤경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신혜선 원우는 머니투데이에서 국제부장, VIP뉴스부장 등을 거쳐 이로운넷 편집장 겸 머니투데이 뉴미디어부장을 맡고 있다.

19기에는 여성 언론인이 많다. 박상숙 원우는 서울신문 문화부장을 지내고 현재는 심의실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혜진 원우는 서울경제에서 부동산 전문기자로 활약하고 있다. 전계현 원우는 지난해 파이낸셜뉴스미디어그룹의 자회사인 FNMICE의 대표이사 부사장에 올랐다. SK E&S 홍보팀장인 김혜진 원우는 여성 임원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OLP는 20 · 21기에 여성 원우가 없었지만 22기에 다시 3명을 신입 회원으로 받았다. 하경민 한국경제TV 앵커는 '증시라인'을 진행하고 있고, 이초희 원우는 아시아경제 소비자경제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지윤 원우는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인 텔코웨어 경영기획팀 부장으로 회사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OLP**

SolutionPartner

내일을 만드는 화학

인류의 건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강한 지구를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식량을 보호하자
생명을 연구하자
오직 행복만 가득한
내일의 삶을 만들자



건강한 내일의 삶을 책임지는 **바이오 솔루션**

LG화학은 자연생태계에 꼭 필요한 식량과 종자를 보호하고
건강을 위한 의약품과 백신을 개발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

OLP

Opinion Leaders Program

OLP Special

OLC 송년회가 확 변했다. 호텔에서 학교로
이용문 OLP 11기

-

2018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이민종 OLP 15기

-

Never long, never in~!
강주엽 OLP 11기

-

2018 연합골프대회 참가기
김석 OLP 12기

-

여행은 즐겁다
허원순 OLP 12기

-

카르멘
정지철 OLC 시네오페라 강사

-

OLP 22기는 남도의 만찬을 택했다
이광엽 OLP 22기

-

점심시간에 세미나를? 오찬학술세미나
OLC 사무국

“OLC 송년회가 확 변했다. 호텔에서 학교로”



글. 이용문
OLP 11기
CBS 산업부 재계팀장

최근 OLC 정기총회 겸 송년회는 주로 남산 힐튼호텔에서 성대하게 진행돼 왔었다. 현직 사무총장이 사회를 보는 1부 공식행사와 시상식에 이어 연예인이 진행하는 2부 여흥으로 이어지곤 했다. OLC는 임의단체로 운영돼 오다가 OLP 5기가 졸업한 뒤인 2004년부터 사단법인으로 정식 설립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OLC의 초창기 정기총회 겸 송년회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곤 했다. 이후 2009년부터는 남산 힐튼호텔이 OLC 송년회의 아지트가 돼 왔다.

그러나 2017년 송년회까지 9년을 이어오던 ‘힐튼 송년회 시대’는 2018년 송년회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6일 치러진 ‘2018년 OLC 정기총회 겸 송년회’는 OLC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로 들어왔다. OLC 회원들의 강력한 후원으로 만들어진 ‘남덕우 경제관’이 1부 정기총회 장소가 됐다. 남덕우 경제관 1층에 자리잡은 ‘홍성열 강의실’이 바로 그곳이다. OLC 회장을 역임한 홍성열 회장의 이름을 딴 계단강의실에서 OLC 정기총회가 열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OLC 회원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 캠퍼스로 회귀했다는 점과 특급호텔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르는 행사보다는 실속 있는 행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특히 행사장을 호텔에서 학교로 전환하면서 절감된 비용으로는 학생 1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이날 정기총회장에는 경제대 13학번 이한솔 군과 15학번 문희주 양 등 2명이 장학금 수혜 학생을 대표해 어진 OLC 회장으로부터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받기도 했다. 한 OLC 회원은 교내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에 대해 “너무 잘했다. 진작에 그랬어야 한다”고 관전평을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예년처럼 하이라이트인 OLC 대상 분야에서 손영득 한국고용정보 대표가 경영대상을 받았고 허인구 G1 사장이 언론대상을, 정길근 CJ부사장이 홍보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는 OLC의 창시자인 남성일 교수가 단상에 올라 그간의 회고를 나누기도 했다.

이어 거구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2부 행사는 OLP 11기 간사인 강주엽 원우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 OLC 회원은 “송년회 1부가 진행된 홍성열 강의실에서 거구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맥이 약간 끊기는 면이 있기는 했지만 예년과 다름없는 뜨거운 분위기에서 뒤풀이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OLP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1 OLC 2018 송년회를 앞두고 남덕우 경제관 1층 홍성열 강의실 앞 로비에서 원우들이 등록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02 남덕우 경제관 1층 로비에서는 OLC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축하하는 실내악 공연도 이어졌다. 03 서강대에서 치러진 2018 OLC 송년회 1부 사회는 박연대 사무총장이 맡았다. 04 올해 OLC 대상자들이 어진 회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05 OLP 1기인 이옥원 원우는 공로패를 3기인 안영석 원우는 감사패를 받았다. 06 서강대 경제학부 학생 2명이 어진 회장으로부터 장학증서를 받고 있다. 07 각종 시상에 이어 어진 회장이 2018년을 회고하고 2019년을 위한 다짐을 밝히고 있다. 08 OLC의 '시조새' 남성일 교수가 회고담을 나누고 있다. 09 송년회 2부 행사는 거구장으로 자리를 옮겨 각 기수별로 테이블에 앉은채 진행됐다. 10 2019년도 OLC 회장으로 수고할 어진 회장이 거구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경영 대상



글. 손영득
OLP 16기
㈜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

프로필 손영득 ㈜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는 채용분야 전문 기업인이다. 학사 장교 13기로 리크루트㈜를 거쳐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국내 최초의 채용전문회사를 창업, 매출 2000억 원 규모의 '국민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앞서 1993년에는 역시 국내 1호 '한국채용박람회'를 기획, 진행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KBS특별기획 '일자리 100만개를 만듭시다'를 공동 기획 및 진행했다. 남녀고용 평등, 고용창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 두 차례의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OLC 경영부문 대상에 빛나는 손영득 ㈜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OLP 16기)는 "새해를 맞아 경영 부문 대상이란 큰 상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2019년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덧붙여 동문분들께 밥 한 끼 살 기회도 달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의 경영철학은 '즐거운 고객', '즐거운 직원', '즐거운 회사'란 '3즐 경영 기조'다. 맨주먹으로 회사를 일군 그가 평소 고객과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고객의 성장과 함께 우리 회사도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 전 직원이 열매를 함께 나누는 기업을 만들자고 항상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국민에 봉사하는 국민 기업이란 자부심으로 일했는데 21년이 흐른 지금에는 콜센터 구축과 운영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슬라이딩 호봉제 개편과 함께 겪어 보지 못했던 노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임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극복했습니다. 항상 동문들에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도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솔선하고 싶습니다."

그는 훌륭하신 교수, 선배들의 적극적인 추천 덕분에 OLP와 연을 맺게 됐고, 이를 통해 폭넓은 세계정세, 경제 흐름을 익힐 기회가 주어져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각계 전문가의 수준 높은 정보, 지식을 배울 소중한 공간을 OLP로 정의했다. OLP에 재학하면서 '사람이 곧 자산이다'란 생각을 다시 했고, 훌륭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친분을 쌓았다고 말했다.

올해 손 대표는 분주한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인공지능(AI)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협업해 최첨단 AI 콜센터 구축 ·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부터는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개발과 관련된 신규사업에 집중해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실과 혁신'에 더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채용전문가인 만큼 청년실업, 고용 침체 상황에 대한 진단이 궁금했다. 손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세계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고용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정부 대책이 시의성 있게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언론 대상



글. 허인구
OLP 10기
G1 강원민방 대표이사

프로필 33년째 방송 외길을 걷고 있는 허인구 G1 강원민방 대표이사 사장은 MBC 다큐 PD, 사회부 기자를 거쳐 SBS에서 워싱턴특파원, 국제부장, 문화과학부장, 경제부장, 스포츠국장을 지냈다. SBS 골프, SBS 스포츠, SBS 미디어크리에이트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지난해 3월 강원민방 사장에 취임했다. 강원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주리주립대 저널리즘 스쿨을 수료했다. 국립오페라단 이사, 대한핸드볼협회 이사, 국방홍보원 정책자문위원, 강원도 금강장학회 이사, 강원대 초빙교수, 한림대 특성화 대학 운영위원, 강원도민회 부회장 등 대외활동도 활발하다.

"언론 대상 상패 문구를 봤어요. '~평소 시대정신을 지키는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 해오셨으며~'가 있더군요. 곰곰이 들여다보며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역방송의 한계를 뛰어넘어 뒤처지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채찍이자, 지역주의와 편견에 파묻히지 않고 보도의 각을 제대로 세우라는 뜻으로도 읽혔습니다."

OLC 언론부문 대상을 받은 허인구 G1 강원민방 대표이사 사장은 수상소감도 천생 기자였다. 그는 "우리 보도국 기자들도 올해 한국방송기자상 지역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CEO가 지녀야 할 긍지와 애사심, 후배 사랑도 표출했다. 겸경사인 셈이다.

OLP, OLC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다. 허 사장은 "시간이 지나며 더 단단해지는 게 OLP, OLC"라며 "카톡방의 OLP 10기 35명은 공기나 물처럼 자연스럽게 늘 곁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형제들"이라고 뿌듯해했다. 10기 원우들은 강원민방에 취임하자 버스까지 빌려 격려방문을 할 정도로 끈끈한 정을 과시했다. 앞으로는 OLC 등산회, 골프회, 뮤지컬 감상회 등의 동호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친목을 넓히고 집행부와의 소통도 강화해 조직 발전을 위한 참신한 의견을 제기하고 싶다고 했다.

'솔선수범하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관리, 기강이 바로 선 소통'이 경영철학인 허 사장이 보는 방송시장과 강원 민방의 역할이 궁금했다. 그는 "지역방송이 종편과 케이블 방송 사이에서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자구노력을 펴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유통을 위한 플랫폼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남북평화 분위기에 맞춰 7년 동안 유지해온 강원민방의 DMZ 방송을 평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콘셉트로 업그레이드해 올해 상반기에 새로 정규편성하고 세계평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발굴하겠다고 피력했다. 강원이 남북 강원도로 나뉜 분단도인 만큼 강원민방의 방송권역을 원산을 포함한 북강원도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사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방송, 개념 있는 방송, 의제설정을 하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취재기자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의 마음 그대로 언론사 대표로서도 늘 현장을 찾는 언론인으로 남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보 대상



글. 정길근
OLP 10기
CJ그룹 커뮤니케이션

프로필 정길근 CJ그룹 커뮤니케이션 실장(부사장)은 1995년 경향신문에 입사해 10년간 언론 핵심부서인 '정경사'(정치부·경제부·사회부)와 경영전략실에서 근무했다. 2006년 3월 CJ 홍보실로 옮긴 후 빼어난 업무능력을 발휘하며 상무를 거쳐 지난해 1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재계 15위인 CJ의 레거시미디어, 뉴미디어를 포함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고 있다. 진주 동명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저보다 훌륭한 선배들이 많잖아요. 상을 받기에 많이 부족한데 수상자로 추천됐다고 해서 약간 놀랐습니다. '언론인들이 추천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제야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더 잘하라는 의미, 격려로 알겠습니다."

OLC 홍보부문 대상을 받은 정길근 CJ그룹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이처럼 겸양해 하며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정 실장은 "상을 받고 보니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위의 분들이 도와준 덕분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OLP 10기들이 모두 잘 되고 있는데 아마 그 기운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동기들에 대한 '보은(報恩)'의 뜻도 빼놓지 않았다.

"조직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상의할 곳도 적어지고 점점 외로워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때 비슷한 처지인 각 조직의 리더분들과 교류하며 인식의 폭을 확장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OLP, OLC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OLP를 마친지 12년이나 흘렀지만 지금도 매번 모임 때마다 20명 이상이 모입니다. 기수의 형님, 동생들에게 배우는 게 참 많아요." OLP, OLC가 조직생활을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도 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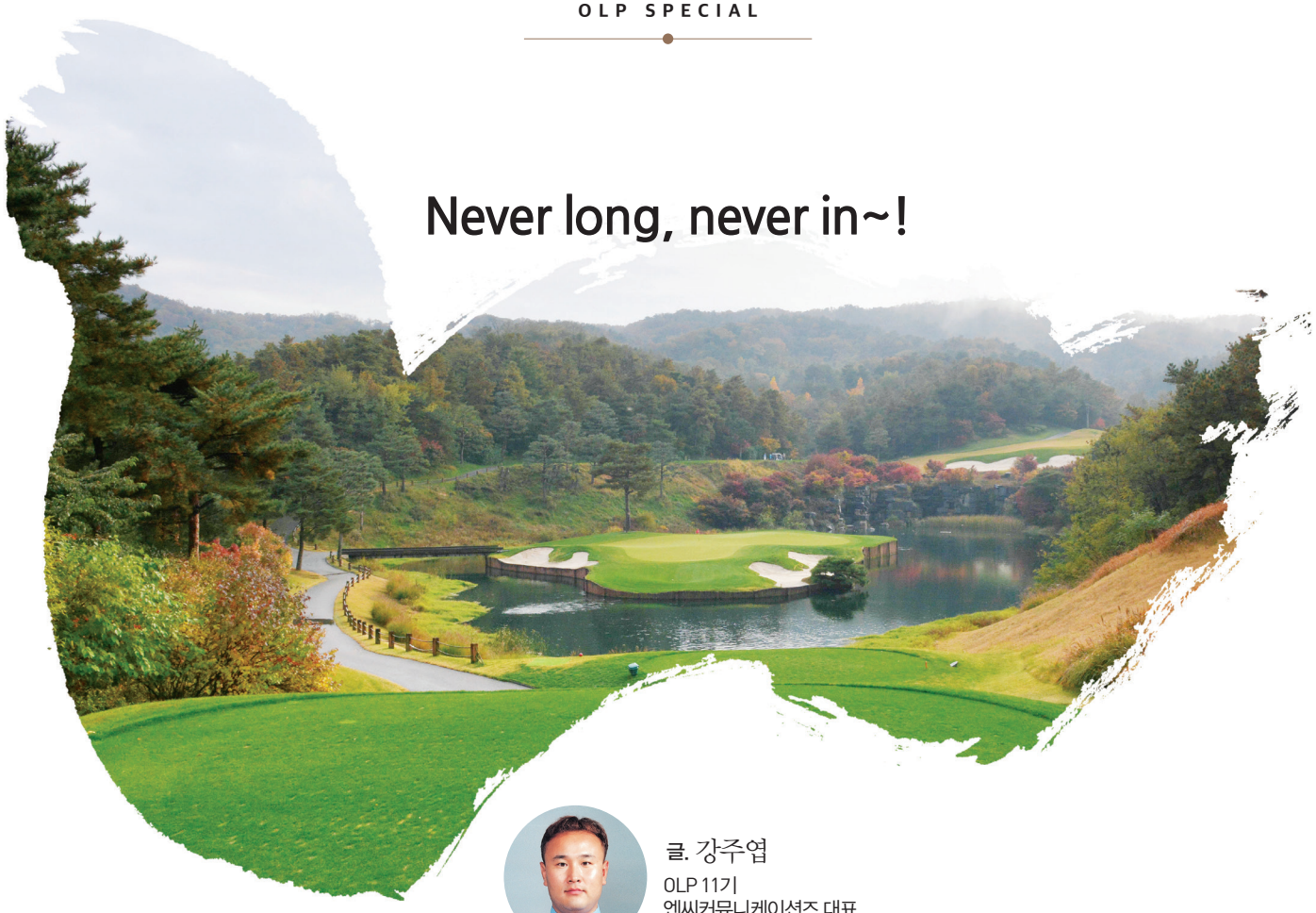
정 실장은 고위 임원으로 승진해 분초를 다투는 지금도 전화, 문자 등 상대방의 요청에 어떻게든 빠르게 대응하고 회신한다. 임기응변도 허용치 않는다. 자신이 정한 가훈(家訓)도 '정직 · 열정 · 배려'다. 그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진정성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CJ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매진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CJ 경영철학에 4가지 행동원칙(정직 · 열정 · 창의 · 존중)이 마침 정 실장의 가훈과 묘하게도 닮았다.

언론과 기업을 모두 경험한 그가 보는 두 영역에 대한 평가가 궁금했다. 그는 "비슷한 경험을 한 모 선배가 '사용하는 근육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그러나 자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진정성을 갖고 상대방과 소통하고 맡은 분야에 전문성과 열정을 보이면 인정을 받는다"고 했다. 기자 때 몸에 밴 열정, 정무적 감각,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폭넓은 시각과 접근자세는 큰 자산이다.

정 실장은 어떤 기업인으로 남고 싶을까. "홍보는 안과 밖을 연결하는 창(窓)으로 창이 닫혀 있거나 불이 꺼져 있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공생하는데 이바지하는 기업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OLP


bibigo
SHARE KOREAN FLAVOR
비비고
CJ
CHEILJEDANG
까다롭게
재료를 엄선해야
김치 맛이 살아나죠
그래서 비비고가 합니다
bibigo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
재료가 곧 맛이다
한식의 자존심
비비고 김치
500g

Never long, never in~!



글. 강주엽
OLP 11기
엔씨커뮤니케이션즈 대표

Never long~ never in~!

기가 막힌 콩글리시~

골프를 시작한지 어언 10여년이 되었다. 소위 100돌이를 겉돌며 자의적 수련을 하던 즈음, 우연히 골프와 경제를 매칭해서 기술한 외국저자의 책자를 접한 적이 있다. 물론 내용은 세세히 생각나진 않지만, 아직도 라운딩에 임할 때면 늘 잊지 않고 되새기는 글이 있다.

'Never long~ never in!'

굳이 직역하자면 "길지 않으면 들어 갈 수 없다……?"

즉, 아마추어들의 베스트호프 "버디"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길다는 해석이 결국 두려움과 불확실한 논리인데, 이런 불편한 멘탈을 극복하고 과감해야만 "버디"라는 승자를 영접하게 되어 물적 정신적 안정과 평안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실패하는 순간 막심한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자책까지 일삼게 되는 최고의 멘탈 포지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버디!!!"라는 유혹은 우리를 늘 도전하게 만든다. 사회경제가 그런 것 같다. 아니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다. 평이하고 평범하게 붙이기 작전을 하면 그닥 굴곡도 불안도 환희도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하겠지만, "직진~!!!"을 외치는 순간 온몸의 혈이 멈추고 심장이 대북을 때리는 긴장감과 스릴을 맛보게 된다. 따라서 결코 아무나, 누구나, 아무렇게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없는 경지적 행위인 듯하다.

그런데 우리 OLC는 그랬다. 매년 펼쳐지는 '서강대 OLC 연합골프대회'를 지켜보면 역시 그들은 다르다 싶다. 막강한 아마추어 프로팀들의 경합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경기인 만큼, 참가자 모두가 보이는 비장함은 절대 "버디"를 간과 할 수 없다는 기백이 느껴진다. 이를 증명하듯 정말 특이한 현상은 선배기수일수록 수상률이 높고, 회장단일수록 우승률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금년

2018 연합대회 역시 각 기 회장단이 각종 상패를 휩쓴 것만 봐도 그런 듯싶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한 번 배운다.

'2018 서강대 OLC 연합골프대회'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극성수기에 치루어지는 행사이다 보니 장소 컨택부터 시간과 비용의 마찰이 있었고, 그 좋은 기후 환경에 유독 행사 일만 우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참 답답했다. 다른 조건이야 물리적으로 해결 가능했지만, 천재지변은 감당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집행부의 책임소재는 아니었지만, 원활한 운영과 진행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숙제가 생긴 셈이다. 행사 전날 밤부터 기대하지 말라는 듯 우천의 파워는 더해갔다. 넋이 나간 사람마냥 지인들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며 걱정에 걱정을 더 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문득 스쳐가는 과거 경험들이 오버랩 되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필자는 지난 20여 년 간 행사대행(이벤트&광고프로모션)업을 해왔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야외에서 경험한 행사가 인생의 반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실외 행사 시 가장 큰 난적은 우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매 행사 때 마다 나름의 우천대비 계획을 강구하지만, 가장 좋은 건 우천을 피해 가는 거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디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부득이 "피할 수 없을 땐 즐겨라"라는 군바리 교훈을 상기하며, 늘 'Interesting & Enjoy'에 포커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준비 아닌 준비를 마치고 나면 허무하게 우천이 줄어들거나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었다. 감히 단언하건데 20여 년간 우천으로 행사를 못하거나 연기한 경우는 단 1회 밖에 없었다. 이 믿기지 않은 현실이 내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걸 훗날 회고하며 알게 되었다.

인간은 참 미련한 확률에 올인을 한다. 매번 찬스는 50%인데, 짝수가 다수 속출하면 다음도 짝수일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게 얼마나 우매한 발상인 줄 알면서도 정작 당사자에게 상황이 도래하면 대개는 그런 확률을 믿고 싶어 한다. 필자 또한 남다르지 않다. 위에 언급한 상황에서 그간의 경험과 업력으로 미루어보아 이번에도 피해가지 않을까, 아니 설사 비가 내리더라도 행사에 지장은 없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치를 높이게 되었다. 하여 사무총장과 몇몇 친분이 두터운 간사장들에게 야심한 밤에 희망어린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다.

그리고 당일 우매한 확률게임은 정답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모두가 경험한대로 당일 날씨는 그럭저럭 행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성공적이었다. 정말 하늘에 감사하고, 협조해 주신 모든 원우님들께 고마울 따름이었다.

우리민족은 속설을 믿고 의지한다. 비오는 날 이사하고, 개업하면… 만사형통 잘 된다는 속설을……. 이 또한 우리 OLC가 나날이 성장과 발전을 더해 갈 좋은 운기라고 믿고 싶다.

끝으로 우리 OLC 소개영상 마지막 장면의 성우 멘트가 떠오른다.

"우리는 뜻과 의지를 모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가치와 리더십으로 선진한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한다. 경제가 힘들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우리 OLC 원우들 중에서도 고충을 털어놓는 이들이 근래 유독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람을 갖는다. 매일 언급되는 경제 위축과 사회 불안 해소를 위해, 우리 OLC 원우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는 우리 오피니언리더십이 약재로 활용 될 수 있기를….

"Never long~ never in~!" **OLP**



2018 연합골프대회 참가기





글. 김석
OLP 12기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이것이 서강 OLC의 힘이었다. 쏟아지는 비도 행사에 참석하려는 원우들을 막지 못했다. 정성에 감동했는지 구름 속에 숨어있던 해도 끝내는 모습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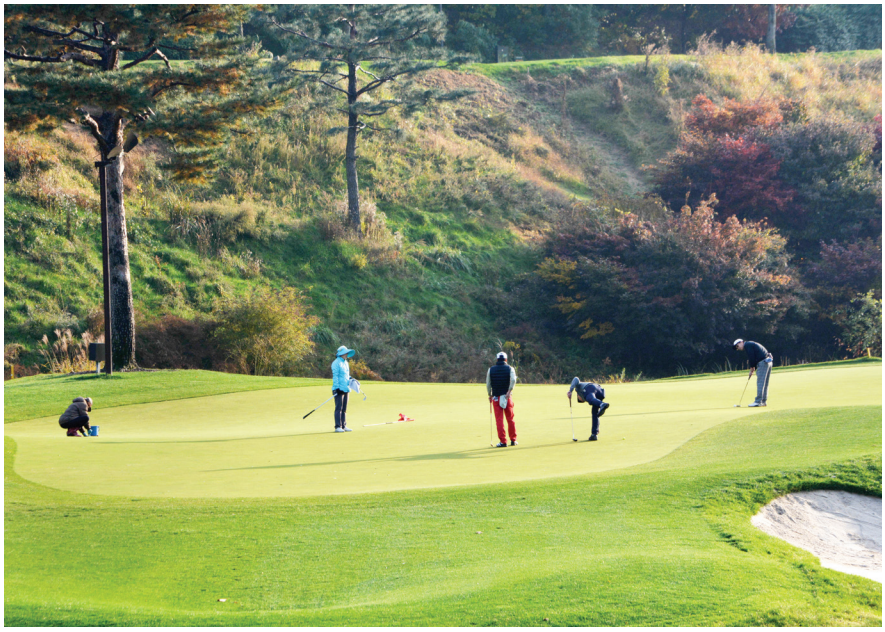
'제17회 서강 OLC 연합골프대회'가 열린 2018년 10월 26일의 날씨는 좋지 않았다. 100% 비가 내릴 것이라던 기상청의 일기예보대로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이런 날은 운전을 못하는 나 같은 '뚜벅이 골퍼'에겐 매우 곤혹스런 날이다. 캐디백과 보스턴백을 멘 채 택시를 타고 내리는 일이 여간 번거롭지 않아서다. 그래도 '유병인 운영이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늦지 않아야 할텐데…'라고 걱정하며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로 갔다.

유병인 운영이사를 만날 때면 항상 기분이 밝아지고, 편안함이 느껴졌다. 원우들의 이런저런 소식을 얘기하다 보니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를 만큼 즐거웠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사우스 스프링스CC까지 가는 길이 옆 동네를 가는 듯 짧게 느껴졌다. 하늘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약속해놓고 오지 않은 원우는 거의 없었다. 어진 총회장의 얘기처럼 "집행부를 믿고 전원 참석했다".

나와 같은 조에 편성된 원우들의 이름을 살펴봤다. 이한식 교수와 17기의 성대영 수석부회장, 그리고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이 교수에게 "혹시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어봤다. 내가 알던 그 이름의 주인공이 맞았다. 11기 박병국 원우였다. 2000~2001년 내가 경찰청 출입 기자이던 시절 공보과장을 지낸 원우였다. 일 잘하기로 소문난 경찰관이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걱정했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언제 어려운 일을 당했었냐는 듯 밝은 모습이어서 매우 반가웠다. 서강 OLC가 그에게도 힘을 준 모양이다.

낮 12시 무렵 우리가 라운딩을 시작하려고 할 때 빗줄기는 한 번 더 굵어졌다. 과연 라운딩을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많이 내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비에도 흔들리지 않는 동반자가 있었다. 이한식 교수였다. 첫 홀부터 투온에 성공하더니 버디를 잡아냈다. 5미터는 넘어 보이는 꽤 먼 거리의 버디 퍼팅을 정확하게 홀 중앙으로 성공시켰다. 라운딩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한 동안은 '나도 한번 버디를 보여줘야지' 하며 덤벼들었다가, 한 동안은 박병국 원우와 옛날 얘기를 하다가 보니 어느새 라운딩이 끝났다. 하루 종일 내리던 비도 어느새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햇빛도 내비쳤다.


2018 제17회 서강대 OLC 연합골프대회




















2018 제17회
서강대 OLC 연합골프대회
2018. 10. 26 FRI | 사우스스프링스CC |


8. 10. 26 FRI | 사우스스프링스CC |


2018. 10. 26 FRI | 사우스스프링스CC |






2018 제17회
서강대 OLC 연합골프대회
2018. 10. 26 FRI | 사우스스프링스CC |













이날의 라운딩을 결산하는 시상식. 라운딩이 끝난 다음에야 합류한 원우도 있었다. 15기 김종술 원우였다.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라운딩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식사 자리에라도 참석하기 위해 뒤늦게 먼 길을 달려온 것이다. "1 · 2교시는 빠져도 좋으니 3교시에는 꼭 참석해 달라"고 하던 이한식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이번에도 사회는 강주엽 원우의 몫이었다. "행운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 성적이 나빠도 실망할 필요 없다"며 나 같은 '골프 지진아'에게 힘을 주더니 "음주를 하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라"고 꼭 필요한 당부로 시상식의 막을 열었다.

강주엽 원우의 말대로 이날 행사에 원우들이 협찬한 상품은 풍성했다. 회장단에서는 3기 구자관 명예회장이 상품권 100만원, 3기 안영석 전임회장은 냉장고용 살균탈취제 70세트, 8기 장재진 명예회장이 오리엔트 갤럭시 시계 3점, 12기 어진 총회장이 토비콤 골드정 7통과 토비콤 에스 13통을 협찬했다. 1기 이종재 전임 언론위원장도 고급 골프모자 3개를 도왔다. 다른 원우들도 11기 정은주 원우가 1865 골프와인세트 5세트, 11기 김승재 원우는 고급 프라이팬세트 11세트, 21기 백경수 원우가 라쉬반 남성용팬티2종 72세트를 협찬했다.

풍부한 협찬 상품 덕에 행사는 경품 추첨으로 시작됐다. 골프장까지 나를 태워준 유병인 운영이사도 경품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됐다. 아침에 올 때만 해도 "나는 그 동안 여러 행사에 가봤지만 경품 당첨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경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피해가는 것 같다"고 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OLC 행운의 여신은 누가 원우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아는 모양이다.

이어 본상의 주인공들이 무대에 섰다. 이번 행사에는 각 기수별로 실력을 겨루는 상들이 새로 만들어졌다. 먼저 '베스트 기수' 상. 4명 이상 참가한 기수를 대상으로 평균 스코어를 계산해 순위를 가리는 상이다. 수상의 영광은 3기가 차지했다. 6명이 참가해 평균을 내면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평균 81.4타로 우승했다. 최하위를 기록한 기수의 평균 타수가 96.7타였다고 하니 무려 평균 15.3타나 앞선 것이다. 기수별 시상의 두 번째는 '기수 대표' 부문. 각 기수 가운데 대표를 한 명씩 뽑아 우승자를 가렸다. 78타를 기록한 21기 홍재식 회장이 우승을 차지했다.

홍재식 회장은 니어리스트 홀에서도 50㎝에 붙여 수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기수 대표 부문에서 우승하며 니어리스트 상을 다른 원우에게 양보했다. 홀 70㎝에 붙인 6기 석철원 전임회장이 니어리스트 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 니어리스트 부문에서는 5위가 홀 1미터, 9위도 홀 3.5미터에 붙였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참고로 홍재식 회장은 "50㎝에서 버디를 못했다"고 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가린 순위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17기 정찬모 회장보다 준우승한 구자관 명예회장이 더 주목을 받았다.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 명예회장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탓에 7기 권영욱 전임회장이 그를 부르기 위해 화장실에까지 가야했다. 구 명예회장은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 51세에 골프를 시작했는데, 75세에 처음 준우승을 했다. 가문의 영광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권영욱 전임회장(1952년 생)은 준우승을 한 구자관 명예회장(1944년 생)의 양보로 시니어(최고연령) 상을 받았다.

메달리스트는 골프가 좋아 골프 대학원까지 다닌 장재진 명예회장. 장 명예회장은 "담낭 제거 수술을 받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운동을 못했다. 쓸개 빠진 인간 됐는데도 팀워크가 좋아서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스코어는 오리지널 77타.

나와 함께 라운딩 한 성대영 수석부회장과 박병국 원우는 나란히 '무한도전' 상을 받았다. 최다 스코어를 기록한 원우들에게 주는 상이다. "참고로 100개는 넘지 않았다"는 게 사회자였던 강주엽 원우의 설명이다. 롱기스트는 280야드를 날린 12기 어진 총회장, 최다버디는 2개를 기록한 3기의 유병인 운영이사, 다복(최다보기) 상은 12개의 김영갑 전임회장(1기)이 차지했다. 레이디퍼스트상은 서강 OLC 연합골프대회를 몇 년째 개근하고 있는 12기 김수경, 14기 김경아 원우가 받았다.

돌아올 때는 가까운 곳에 사는 이한식 교수의 차를 타고 왔다. OLC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가진 이 교수와 얘기를 나누다보니 눈 깜짝할 사이 집 앞에 와있었다. **OLP**

토함산에서 가을 바다, 신라의 바다, 호국의 바다, 우국의 바다를 바라보다

OLC 가을 가족여행
2018 10월 마지막 토요일, 경주행





글. 허원순
OLP 12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여행은 즐겁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가슴 설레는 일이다. 신들의 천국, 그리스의 신화에서 '여행의 신'과 '상업의 신'이 동일체라는 점도 흥미롭다. 그 옛날에도 경제적 행위로서 여행을 봤다는 것일까. 프랑스의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는 이 이미지를 제대로 활용한 기업이다. 여행의 신 '헤르메스'에서 기업 상표를 따 왔고 명품으로 성공했다. 1837년 말안장과 마구(馬具)용품을 만들던 작은 가게로 시작해 여행용 가방을 만들었고,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최고급품을 만들고 있다. 여행의 이미지를 상업화에 성공했다고나 할까.

여행은 즐겁고 설레지만 누구나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을 것이다. 긴 여정도 좋지만, 당일치기 짧은 여행이면 어떤가. 바쁘고 빡빡한 현대의 도시인들은 시간 내기에서도 경비에서도 여유가 많지는 않다. 늘 마음속으로는 탈출을 꿈꾸지만 실행은 어렵다. 이래저래 여행은 '비일상(非日常)이고, 그래서 귀하다.

어디를 갔다, 가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본 여행지나 꼽고 있다면 여행에서는 아직 아마추어다. 여행은 누구와 어떻게 갔느냐가 중요하다. '누구와 어떻게'에는 안내자도 포함된다. 매년 두 차례 OLC의 '가족초청 해설투어'는 이 점에서 좋은 여행이다. 살아가면서 추억 하나 더 남기기에 도움 되는 여행이다.

하루짜리 당일 여행이면 어떤가. 좋은 동반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의미 있는 곳을 다녀온다면 생활에 활력소를 더할 수 있다. OLC 가족여행에는 자상하면서도 엄하고, 유식한 고정 안내자가 있다.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제대로 문화를 이해하는 고품격 안내자다. 역사에 대한 지식과 안목도 깊은, 모 공기업에서 은퇴자 '김 선생님'이 그 분이다. '서울 법대' 출신이라는 분의 내공이 만만찮다는 정도로 해둘까.

2018년 가을 OLC 가족여행지는 천년 고도 경주였다. 고속도로에서 한번 쉬고도 서울을 벗어난 지 4시간이 안 되어 먼저 도착한 곳은 괘릉. 8세기말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 원성왕의 무덤이다. 서역의 이방인 석상으로 유명한 곳이다. 12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서역인의 부리부리한 눈매와 텁석부리 같은 수염이 어제 만든 것처럼 살아 꿈틀거린다. 그 옛적 고대 신라 시대에도 여행의 신과 상업의 신을 업고 극동의 신라와 이역만리의 서역은 서로 여행을 하고 교역을 했을까. 아니, 한 것이다. 역동적 자세의 석상은 그렇게 웅변하고 있었다.







우리는 정토의 땅, 불국사를 거쳐 토함산으로 갔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유명한 불국사에 새삼 무슨 감상 몇 줄을 더하랴만, 안내자 김 선생을 뒤따르면 불과 한 시간이어도 좋다. 설명에 일관성이 있고, 관점도 있다. 핵심이 있다. 좋은 안내자는 훗날 '어디를 누구와 다녀왔다'고 돌아볼 때 나만의 빛을 더한다.

명불허전은 토함산 석굴암도 마찬가지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는 그만한 가치와 사연이 있는 것이다. 전국 여러 곳의 석굴 중의 석굴, 토함산 석굴암. 이 또한 어설픈 설명이나 얕은 수준의 감상은 아니 적느니 보다 못하다. '프로'는 이런 설명에 승부를 걸지 않는 법이다. 네이버에, 구글에 제원과 설명도 쌓여 있다.

팁 삼아, 현장의 느낌을 담뿍 담아 석굴암 방문기를 굳이 남기자면 '바다 바라보기'다. 토함산 위에서 바라보는 동해 바다다. 명산을 찾아 등반을 할 때도 때로는 부드러운 흙길에 주목해 본다거나 특징이 있다면 등산로 양옆의 나무관람에 의미를 둘 때도 있지 않는가. 그렇듯 석굴암에서는 먼 곳, 바다를 봤다.

석굴암 앞에서 바라보는 동해는 시원하게 가슴부터 트이게 한다. 토함산 높은 데서 가을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2018년 10월 마지막 주의 OLC 경주행은 넉넉했고 충분했다. 죽어서도 바다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해중능(海中陵)을 생각하면 우국(憂國)의 바다였다. 불국사와 석굴암, 그 시대 신라의 호국 불교를 생각하면 동해의 그 바다는 호국의 바다이기도 했다. 토함산에서 내려다본 가을 바다는 물론 신라의 바다다. 그 옛날 호국의 바다는 지금 우국의 바다로 비쳤다.

우리는 그 바다를 응시하며 다시 전용 버스에 올랐다. 굽이굽이 토함산을 내려 신라의 바다, 동해로 더 이동했다. 이번에는 감은사 절터. 천년 고찰의 영광이라기에 산재한 주춧돌은 너무도 소박했다. 바로 옆 우국의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에 맞서 천년을 버텨온 한 쌍의 석탑이 옛 가람의 위용을 대신할 뿐이었다. 감은사탑은 당대의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어느 권의 표지 사진으로도 유명해졌다. 탑만 남은 감은사지는 불국사처럼 석굴암처럼 원형이 보전되지 않아서 오히려 좋았다. 우국의 바다에 더 많은 여백과 여운을 던지고, 통일 신라에 대해 더 상상을 자극하는 곳이랄까.

감은사 탑에 잠시 걸렸던 가을 저녁의 햇살도 오래 즐길 수가 없었다. 무르익은 가을볕은 성급하게 서쪽으로 제 갈 길을 재촉했고, 우리는 안락한 버스에 올랐다. OLC의 버스는 늘 편하다. 원우님들의 편한 얼굴들, 하루의 가을빛에 조금 더 익은 모습에 서로 흡족해하며 가벼운 졸음 속에 귀경했다. 돌아올 집이 있기에 여행은 행복한 것일까. 그래서 편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던 하루였다. 옛 신라로의 짧은 여행, 아내가 더 편안해했다. **OLP**


觀音殿


大雄殿

카르멘
CARMEN



글. 정지철
OLC 시네오페라 강사
㈜김자경오페라단 예술총감독
NEW 오페라 페스티벌 제작총감독

내가 아직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나이가 40대, 그것도 중반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소리치며 괴로워하다가 문득 이 나이를 말하는 불혹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갑자기 뭔가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 흔들림 없는 중심이 잡혀있는 중후한 40대. 중심과 역동성이 아울러 존재하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기 보다 유혹이랄 게 없다는 말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살다보니 다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 놈이 그 놈 같고 그 여자도 그 여자 같고 뭐 좀 다르게 포장되어 있어도 열어보면 항상 내용물은 같다는…….

유혹은 두근거림이고 떨림이다. 유혹이랄 게 없다는 말은 두근거릴 일도 떨림도 없다는 것. 훨씬 좋은 외제차를 구입했을 때 보다 젊은 시절 값싼 중고차를 처음으로 구입했을 때가 훨씬 떨리고 기뻤었다. 몇 백의 월급을 받을 때보다 백만 원도 안 되는 첫 월급봉투를 열던 젊은 시절이 더 두근거렸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근거림을 맛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내 나이 40대라는 것보다 훨씬 더 슬픈 일이다.

우리의 차곡차곡 쌓여진 추억들의 사이에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두근거림과 떨림이 존재한다. 인간은 그 맛보았던 두근거림을 위해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마음, 성공하겠다는 마음에는 어쩌면 그곳에는 내가 느꼈던 그 두근거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할수록 돈을 벌수록 절망에 빠져간다.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기대했던 그 두근거림은 없고 영원히 없을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빠진 채 정신없이 나아가게 할 뿐이다. 적어도 내가 알기에는 단 한가지의 감정만이 이 권태로움의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 사실 "니들이 사랑을 알아?" 라고 물어보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사랑이다. 사랑해 라고 입이 부르트도록 외치지만 정확히 그 감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는 감정이지, 왜 생기는 건지, 엄마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이 도대체 왜 단어가 같은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사랑은 이상한 떨림이고 전혀 퇴색하지 않는 두근거림일 것이라는 것이다. 100세의 나이에도 심장의 박동소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원대한 호르몬이랄까.

"사랑? 개나 줘버려라." 라는 30대도 있다. 내게 사랑은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들이 5분 뒤에 자신의 미래를 모르듯이 사랑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더 피를 말리고 두





근거린다. 결국 그 맛을 한번이라도 보았다면 사랑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를 파멸에 몰아넣을지 아니면 나를 미치게 할지 전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떨림과 두근거림에 마치 중독된 것처럼 열중하는 것이리라. 그것을 멈추는 순간 허허로움의 바다와 권태의 나락이 눈앞에 펼쳐질까 두려워 끝없이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다.

조르쥬 비제

조르쥬 비제는 프랑스의 젊은 작곡가였다. 그는 가난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당시 프랑스에는 선진 문물인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배우라는 취지의 로마 콩쿨이 있었다. 강대국임에도 배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프랑스이기에 이 콩쿨을 통한 유능한 자국의 작곡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리라. 여기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능한 청년 비제는 3년 동안 국비로 로마에서 오페라를 배운다. 열심히 공부한 비제는 오늘날의 모든 유학생들도 그러하듯 조국 프랑스에서의 빛나는 미래를 꿈꿨으리라. 하지만 세상은 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이렇게 말해준다. 이놈아 세상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녀.

비제는 유학을 다녀와서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굳이 유학을 가지 않았어도 그의 놀라운 피아노 솜씨로 몇 푼의 돈을 손에 쥐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 이상도 없었다. 그래도 비제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하기에는 그의 재능이 너무나 위대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넘쳐흐르는 비제의 재능이 보이기 시작한다. 진주 조개잡이라는 오페라로 교만한 파리인들의 입에서 탁월이란 단어가 피어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비제를 기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운명 같은 날 비제는 기차에서 한 여인을 만난다. 그녀의 이름은 셀레스트 백작부인.

모가도르

41세의 나이가 믿기 어려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비제는 24세, 우아하고 아름다움에 목숨까지 내걸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이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뻔한 스토리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기에는 그녀는 너무나 대단한 존재였다. 백작부인이지만 사실 고급매춘부 출신인 셀레스트 베나르는 모가도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다. 대단한 춤 솜씨와 아름다움을 지닌 그녀를 보면 남자들이 겹겹이 에워싼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모가도르는 모로코의 도시로 전략적 요충지이다 보니 프랑스의 맹렬한 공격을 허구한 날 받은 곳이다. 허구한 날 남성들의 공략을 받던 모가도르는 겹겹이 에워싼 남자들 중에 의외에 남자를 선택한다. 허울만 백작인 셀레스트 백작. 신분이 주는 매력이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모가도르가 돈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하다. 모가도르는 충분한 돈을 벌고 있었고 셀레스트 백



작은 빈털터리였기 때문이다. 훗날 그녀는 자신의 비망록에 부끄럼 없이 모든 남자들과의 관계와 자신의 소신을 적어서 출판한다.

"뜨거운 열정을 사랑한다.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남자가 아닌 내가 줄 수밖에 없는 남자를 사랑했다. 그렇지만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모두가 바라는 대답인 "네"를 반복하는 여자들은 "아니오"를 할 수 있을 때의 그 뜨거움과 희열을 알 수 없다."

비망록에는 비제와의 관계가 없기에 적어도 그 둘이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비제는 그녀에게 매료됐다. 마침 당대에 유명한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의 주인공은 마치 그녀의 화신 같았다. 비제는 오페라를 쓰기로 했고, 곧 매리메의 소설이 비제라는 걸출한 작곡가에 의해 오페라로 탄생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목숨을 바친 오페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제의 대실패를 예언했다. 특히 카르멘 공연을 하기로 한 오페라 코미크 극장의 디렉터 아돌프 드 루뱅은 이렇게 말했다.

"뭐 우리 고상한 메조소프라노 갈리 마리에게 집시의 옷을 입혀? 우리 소중한 여성 합창단원이 무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움질을 하고 우리 무대에 시체가 나뒹군다고? 도대체 비제 그 작자는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장담하건데 이 오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고 그의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2막이 끝나기도 전에 비제는 그가 일생을 걸었던 오페라를 보던 사람들이 마치 어쩌다가 쓰레기더미에 쓰러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 남아있는 관중들은 성악가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 때문에 자신의 대화가 방해받는다는 듯이 큰소리로 대화를 나눈다. 이런 매너를 책망하는 소리, 비웃음 소리, 하품하는 소리…….

비제는 조용히 극장을 나갔고 새벽까지 파리 시내를 떠돌며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리고 늘 그를 괴롭히던 인후통이 재발한다. 결국 그는 시골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카르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한 채 그만 숨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비제는 가고 카르멘은 우리에게 왔다.

놀라운 일은 카르멘의 초연이 있은 후 그 공연을 본 몇몇의 지식인들은 그 오페라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추천으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카르멘의 공연을 보러 오게 된다. 차츰 그 발길은 너무나도 많아지고 그들은 얼마나 위대한 작곡가가 얼마나 어이없는 이유로 그들 곁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초연에 참여했던 알렉상드르 뒤마피스, 생상, 구노 등도 열광했지만 니체는 이 공연을 보고 감격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오페라는 모든 오페라 중에서도 지중해의 태양과 같은 오페라가 될 것이다."

니체가 노스트라다무스 못지않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도 오페라 제작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 오페라 무대에 아무 것도 없어도 그 음악만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성공하는 오페라가 카르멘이라고.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언제 어느 곳에서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할 사랑이 오게 될 지 귀신도 모른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이 글을 보고서 너무나 보고 싶어진 오페라 카르멘이 어쩌면 당신 인생에 뛰는 가슴을 선사할 보물이 될 지는 정말 며느리도 모른다는 것이다. OLP

HYUNDAI
GLOBAL MOTORS



(주)현대글로벌모터스

주요사업

프로젝트 1	현대자동차 트럭, 버스 CBU, DKD, SKD, CKD 및 동남아 국가용 특수시스템 차량 개발 / 수출
프로젝트 2	방산물자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국방부에 합작회사 설립 및 수출
프로젝트 3	인도 전기차 리트륨 배터리 연구개발 회사(ThunderVolt)와 HGM에 한국 리트륨 배터리 생산 기술 / 시스템 및 차량용 전기파워트레인 특허 등록. 생산 법인 설립 / 현대기아차 장착 추진
프로젝트 4	인도 및 미국 AI 연구개발 회사(USA ISRAEL AI R&D)와 현대차 자율주행 / 음성인식 기술개발 합작연구소 및 법인 설립 추진

(주)현대글로벌모터스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해성빌딩 7층

OLP 22기는
남도의 만찬을 택했다





글. 이광엽
OLP 22기
YTN 부국장



OLP 선배 기수들은 대부분 해외로 졸업여행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 22기도 관행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일본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런데 선택 직후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해외는 밤늦은 시간까지 오붓하게 즐길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거론됐다. 새벽까지 음주문화를 즐긴 22기 원우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을 투표에 부치자는 실리론이 급부상했다. 다시 긴급의견 수렴을 통해 여수와 전주, 고창 등 남도 여행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바쁜 일정으로 해외여행에 부담을 느낀 원우들도 국내 일정에 합류하게 됐다. 결국 지도교수님 두 분과 원우 16명 등 모두 18명이 남도 길을 동행했다. 우리는 추억을 함께 만들기 위해 골프조를 따로 두지 않고 관광 위주로만 함께 움직이기로 결의를 다졌다.

2019년 새해 벽두인 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2박3일 여행의 첫날 날씨는 추웠지만 쾌청했다. 서강대 본관 앞에 주차한 리무진 버스에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탑승자들 모두 제 시간에 탔다. 순조로운 출발에 모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격려의 말이 쏟아졌다.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버스가 서강대 주변을 벗어나는 순간 김 모 부장이 버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다. 이 원우는 여행 참가 뜻을 알렸는데 여행지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그만 불참으로 집계된 것이다. 혼자서 꼼꼼하고 알찬 여행계획을 준비해 '꼼꼼대마왕'으로 불린 윤영두 사무총장(SK E&S 부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겐 그저 '옥의 티'에 불과했다. 든든한 김 부장이 여행 대열에 합류했기에 설렘은 더 커졌다.









첫날 여행지 여수는 역시 날씨가 온화했고 항구는 아름다웠다. '동백섬'으로 불리는 오동도를 구경하면서 등대도 찾았는데 고요한 남해 바다가 한 눈에 쏙 들어왔다. 이곳 저곳을 구경하면서 삼삼오오 이야기꽃이 이어졌다. 마치 고등학교 수학여행 분위기와 다름없었다. 여수의 횟집은 기대했던 맛집 그대로였다. 외국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생선회와 갓김치 등 푸짐한 음식들이 줄이어 나왔다. 특히 자연산 감성돔의 쫀득쫀득한 맛은 일품이었다. 술자리는 실내포장마차에 이어 노래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여수의 밤은 깊었다.

둘째 날, 바다 위와 섬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면서 여수의 풍광을 한눈에 내려다봤다. 전날 숙취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우들은 오전부터 막걸리를 주고받으며 자리에서 좀처럼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점심으로 먹은 게장은 말 그대로 밥도둑이었다. 여수의 자랑인 게장과 갓김치는 나중에 졸업여행 선물로 원우들 집에 배달됐다. 우리 일행은 이어 춘향전의 명소인 남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춘향테마파크에서 제기차기 단체 대항전도 벌이고 각자 그네 타는 솜씨도 발휘했다. 춘향의 스토리를 재현한 곳곳을 돌아보며 함께 오붓하게 산책을 즐겼다.

이날 저녁 무렵에는 문화예술의 도시 전주에 안착했다. 만찬 장소는 사람이 붐비는 한옥마을에서 가까운 한정식 집이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향토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모두 배가 잔뜩 불렀지만 이날도 2차를 마다할 수 없었다. 전주에서 태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맥집(가게맥주집)에서 술자리가 차려졌는데 맥주와 소주 몇 박스가 동이 날 정도로 모두 만취했다. 특히 이날 일정에 늦게 합류한 원우들이 이른바 '파도타기' 주문을 연거푸 쏟아내 술을 피할 겨를이 없었다. 술이 동이 날 정도가 되자 분주하게 오간 가맥집 주인조차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렇다고 마지막 날 밤 3차를 건너 뛸 수 없었다. 이틀 연속 찾은 노래방에서 어찌나 술잔이 많이 돌았는지 세 명의 안경이 서로 뒤바뀌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중 한 분이 안경이 바뀐 줄도 모르고 먼저 서울로 떠나는 바람에 다른 한 분은 생전 처음 남의 안경을 쓰고 한나절을 보내야 했다.

셋째 날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전북 고창의 천 년 고찰 선운사에 들렸다. 여행 마지막 날 아쉬움을 나누며 가볍게 산책하며 사찰을 관람했다. 점심때는 이 고장의 유명 음식인 풍천장어를 배불리 먹고 지친 체력을 거뜬히 회복했다.

2박3일 남도 여행은 22기 모두에게 잊을 없는 깊은 추억을 남겼다. 비록 회장단이 늦게 결성되고 졸업여행 계획도 급선회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느 기수 못지않게 끈끈한 동료애를 다지게 됐다. 대부분 서강대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지만 넉 달간의 OLP 과정과 남도 여행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더욱 확장하게 됐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우리의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22기의 우정은 영원하리라! **OLP**





점심시간에 세미나를? 오찬학술세미나

글. OLC사무국





'국내외 전문가 초청 연구 및 학술 행사의 개최'

이 문장은 바로 오피니언 리더스 클럽의 정관 제 3장 클럽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 중 하나로, 2012년 토론회 이후 잠시 멈춰졌던 학술 행사를 다시 시작하고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OLC 원우들 간의 교류를 더 자주 갖고자 오찬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5월 24일, 오찬학술세미나의 첫 발걸음. 처음으로 진행하게 된 오찬학술세미나인 만큼 주제 결정부터 신중해 질 수 밖에 없었는데, 교수님들의 적극 추천으로 변준영 파트너(EY 한영)님의 '슈퍼플루이드 시대의 기업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결정하게 되었다. 현재 각종 미디어와 여러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제인 만큼 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 주제였고, 무엇보다 많은 경제인과 자문회의에서도 관심을 갖던 강의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약 한 달여간 뉴스레터, 문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지만 아무래도 조찬 혹은 저녁 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을 활용한 세미나인지라 원우님들께서 참석 가능하실까하는 걱정이 아예 없진 않았다. 하지만 좋은 강연에 대한 믿음으로 그 불안함을 떨치면서 행사를 준비해갔다. 세미나 당일, 걱정은 기우였다는 듯 미리 사전 신청해주셨던 원우님들 대부분 참석하셨고, 시작 전 샌드위치와 다과를 준비해 놓은 510호 강의실에 교수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간단한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12시가 되자 세미나가 진행되는 514호로 자리를 옮겼고, 바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세미나는 1시간 강의 후 약 3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원우님들의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슈퍼플루이드 시대에 대한 설명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진기업 케이스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강하신 원우님들께서 매우 만족하셨던 시간이 되었다. (강의 진행 후 간단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동일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듣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을 만큼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어진 두 번째 오찬학술세미나는 최고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여름의 끝자락에 열렸다. 주제는 설문 조사 당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블록체인으로 결정되었고, 강의는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최고 권위자이신 박성준 암호학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은 2018 다보스 포럼이 선정한 차세대 금융시스템으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자,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분야로 꼽힌 만큼 원우님들로부터 관심도 남달랐다. 우선 사전 신청자 수가 이미 첫 번째 세미나 청강 원우수를 뛰어 넘었고, 동반자 가능여부를 묻는 문의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세미나 당일에는 사전 신청 원우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심은 물론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참석하신 원우님들까지 계셔서 여유롭게 준비했던 샌드위치와 자료들이 부족할 만큼 강의에 대한 열의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부족한 식사는 다행히 5기 현명숙 원우님께서 찬조해 주신 와플이 있어 채울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강의 후질의응답으로 진행했는데, 박사님께서도 원우님들의 강의에 대한 열정을 느끼셨는지 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더욱 뜨겁게 강의를 해주셨고, 이에 답하듯 세미나가 끝마칠 때까지 참석하신 원우님들 모두가 열성적인 모습으로 청강하셨다.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 생각 이상으로 원우님들의 세미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2019년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오찬학술세미나를 개최하려 한다. 우선 첫 번째로 3월 29일 금요일, 2018년에 이어 4차 산업 혁명 시리즈로 4차 산업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바꾸는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원우님들을 만날 예정이다. 의대 출신의 미래학자이신 정지훈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며, 알파고 등장 이후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키워가고 있는 인공지능(AI)과 이미 사회 곳곳에 이용되고 있는 로봇이 이끄는 사회 변화를 다룰 예정이다.

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신청 부탁드리며, 원하시는 주제와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사무국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OLP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만의 로보어드바이저로
세상 편한 자산관리의 시작
신한 SOL Rich

신한 SOL Rich의 로보어드바이저가 포트폴리오 설계부터
펀드 추천까지 알아서 자산관리 해주니까



복잡한 세상, 편한 자산관리

신한 SOL Rich | 쏠리치

복잡하고 어려웠던 자산관리는 끝! 신한 SOL Rich로 쉽고 편하게 자산관리 시작!

신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고객의 자산진단, 자산배분, 상품추천,
포트폴리오 설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Full 자산관리 서비스

쏠리치 펀드
개인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투자상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을 위한 투자상품 포트폴리오

쏠리치 퇴직연금
신한은행만의 자산배분 전략으로
자산진단 및 포트폴리오 설계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토탈 자산관리 서비스



지금 '신한 SOL'
다운로드 받으세요

Available on the App Store
ANDROID APP ON Google Play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18-2-2851호 (2018.12.13~2019.6.3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8-04868호 (2018.12.13~2019.6.30)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쏠리치 멀티전략 I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 참여 예정이며, 신한-디셈버 I SAAC 알고리즘은 1차 테스트베드 통과하여 운영중입니다.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hinhan.com, 1577-8000)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OLP

Opinion Leaders Program

OLP 원우의 우리 기수 자랑

더는 '도끼질' 할 수 없는 스타 벤처기업인

안미현 OLP 10기

더는 '도끼질' 할 수 없는 스타 벤처기업인

OLP 10기 이주완 메가존 대표를 소개합니다



글. 안미현
OLP 10기
서울신문 심의의원

그는 우리 기수(10기)의 유일한 20대이자 유일한 총각이었다. 우리 기수의 유일한 홍일점이자 싱글이었던 내가 두 눈을 희번덕거렸음은 말할 것도 없다. 첫 만남은 입학 첫 날 3교시(예나 지금이나 3교시가 참 중요하다)에서였다. 20년 가까운 나이 차 따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지극정성 잘해주겠노라며 숱하게 '도끼질'을 해댔음에도 그가 내게 허용한 것은 러브샷 폭탄주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러브샷의 박제된 추억만을 남긴 채 표표히 멀어져갔다. 생업이 바쁜지 차츰 동기 모임에 얼굴을 비추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이후로 나의 '도끼질'도 급격히 다른 표적으로 옮겨갔다.

그런 그가 다시 동기들의 표적권에 들어온 것은 매스컴 덕분이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글로벌 최고 파트너사,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2018 벤처 1000억 기업', '2018년을 빛낸 소프트웨어 산업인'…. 그는 더 이상 첫 3교시 때 수줍게 웃던 청년 기업인이 아니었다. 스타 벤처기업인이었다. 모임에는 잘 나오지 못해도 단톡방에 한없이 겸손하게 안부를 올리던 그였기에, 전도유망한 CEO인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로 '대단한' 줄은 미처 몰랐다.

이쯤에서 그의 실명을 밝혀야 할 것 같다. 이주완(40) 메가존 대표다. 그가 2006년 10기로 입학해 이듬해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직원 수는 300명, 매출은 300억 원 남짓이었다. 그랬던 회사가 지금은 직원 수 610명에 매출은 2200억 원이다. 매출 1000억 원을 처음 돌파한 게 2017년 말이라고 하니 불과 10년 새 회사 규모를 '따블'로 만든 셈이다. 국내외 고객사 수만 9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기업인들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곡(哭)소리 내던 지난해에도 그는 '꿋꿋이' 직원 120명을 신규 채용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도 받았다.

메가존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에게도 이제 익숙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나 주택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는 모두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개념이 생소하던 2009년, "재미도 있어 보이고 크게 실패할 것 같지도 않아 보여" 클라우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게 이 대표의 얘기다. "이미 그때 선진국에서는 클라우드가 한창 퍼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트렌드에 한 박자 늦기는 해도 역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말아먹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요가 거의 없었던 탓에 꽤 오랫동안 그는 '해외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매진해야 했다.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열린 것은 2016년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부터라고. 이때부터 국내 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대기업들도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됐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를 100조원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시장은 클라우드 전환율이 5%에







01. 02 대학 1학년 때 창업해 매출 2000억원대의 중견 IT기업으로 키워낸 이주완 메가존 대표.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것'(컴퓨터)에 주목한 게 창업 계기이자 20년 생존 비결이라고 털어놓았다. 03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가진 메가존 임직원들과의 송년회. 이 대표는 경제가 안 좋았던 지난해에도 직원을 120명이나 신규 채용해 산업포장을 받았다. (메가존 제공)

불과해요. 미국이 40%인 것에 비하면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요. 메가존이 이 시장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라고는 하지만 아직 95%가 미개척 상태인 만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쳇말로 '물이 들어온' 건 분명하지만 이제는 선발주자의 이점이 사라졌다며 웃는 그는 "성장하는 시장에는 늘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부드러움 속의 강단은 여전하다.

그가 창업에 뛰어든 것은 대학 1학년 때인 1998년이다. DJ(김대중) 정부가 IT 붐을 한창 일으키던 때였다. 워낙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던 지라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며 정부 지원 사업에 응모했는데 "덜컥" 심사를 통과해 버렸단다. 그렇게 해서 그 해 11월 설립한 게 메가존이다. "곧 겨울방학이니 잠깐 해보자고 한 게 벌써 20년이 됐네요" 한없이 순해 보이는 얼굴과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어디에 그런 '무모함'과 용기가 숨어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제가 20년 (사업)해보니 무조건 도전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앞뒤 계산해 뭘 한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상대로 미래가 열리지는 않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아, 이거다' 싶어 사업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라 컴퓨터로 하는 일에 나섰고, 하다 보니 더 재미있을 것 같아 클라우드로 방향을 튼 거지요.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저기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기업가정신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너나없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도전정신이 없다고 혀를 차기에는 세상이 너무 가혹한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의 기업가정신이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것이 지금, 10기의 기라성 같은 다른 동기들을 제쳐두고 '李비어천가'를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OLP**



더 넓은 세상에서 기회를 만듭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금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OLP

Opinion Leaders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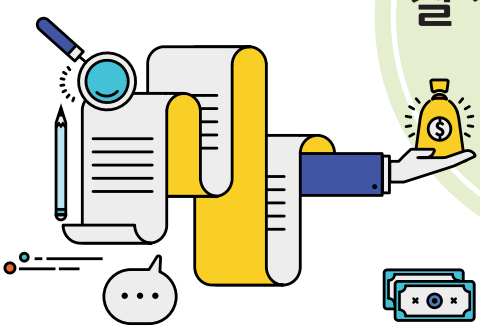
OLP가 보는 세상

OLP Essay

OLP Travel Essay



같이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되려면





글. 김상민
OLP 7기
〈탄핵〉, 〈아버지에게서 받은 100개의 편지〉, 〈이기적 국민〉 저자

노인 한 분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물었다.

"내가 요사이 어디서 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상금도 생겼다고. 그래서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세금을 먼저 내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어."

"선생님은 연세도 높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 도움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아?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산서를 보더니) 고것밖에 안되나? 그렇게 적은 돈이면 내나 마나지. 좀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나?"

"(세무사가 법적으로 가장 많이 내는 방법을 보여주니) 됐어. 그만큼은 내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세무사는 노인을 배웅한 후 "나라가 없을 때 사신 분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나는 한 번도 나라의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라고 반성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노인은 '마라톤의 영웅' 고 손기정 옹이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책 〈백년을 살아보니〉에 이 내용이 실려 있다.

한국 사회에 '더불어 살자' '같이 먹고 살자'는 목소리가 강하다. 예로부터 농경 집단사회인 만큼 우리 사회에는 개인보다는 공익, '혼자'보다는 '함께'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선배님은 "2019년은 각자도생의 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먹고 살겠습니다'를 더 듣고 싶은 올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칼럼에서 '국민 아버지'로 불리는 최불암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불암씨는 1940년에 태어나 우리 나이로 팔순이다. 연기생활을 무척 오래했지만 영화는 별로 찍지 않았다. 과거 〈수사반장〉의 반장 역할, 〈전원일기〉의 양촌리 회장 이미지만 강렬하게 남아 있다. 오래전 그는 "왜 TV 드라마만 하세요? 스크린은 왜 안하는지……"라는 질문에 "TV로 충분합니다. 내가 영화까지 하면 다른 배우들의 기회가 줄어듭니다."라고 대답했다.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로 연기하는 동년배나 후배들을 위해 영화 출연을 자제했다는 얘기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배님의 옥고에서 굳이 옥의 티를 찾아내자면 "같이 먹고 살겠습니다"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같이 먹고 살자'는 외침은 큰 반면, 그 이전에 전제조건인 '내 몫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고 언급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주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맡겨진 책임과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먹고 살자'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도 '권리보다는 책임, 권한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면서 발전했다. 민주주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아테네는 왕정과 참주정을 거쳤다가 기원전 508년 민주정을 도입했다. (1993년 민주주의 탄생 2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민주정은 '법 앞의 평등' 정신과 '데모크라티아(Demokratia, 민중에 의한 통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든 남성 시민이 아테네의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마련됐는데, 그들은 페르시아에 맞서 승리했던 살라미스해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민주정을 크게 칭찬했다. "(사실상 독재자인) 참주 치하에서는 전쟁에서 이웃 나라를 능가하지 못했던 아테네가 참주를 축출하고 나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월등해졌다. 압제 하에서 주인을 위해 일할 때는 몸을 사렸지만, 자유의 몸이 되자 각자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페리클레스는 전몰장병을 위한 연설에서 "우리가 자유국가를 물려받는 것은 전몰장병들의 용기 덕분이었다."고 칭송했다. 그러나 아테네는 얼마 안가 직접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변질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판을 치면서 번영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쇠퇴했다.

로마는 나라의 생존이 달린 전투가 벌어졌을 때 시민들이 적극 참여했다. 그들은 갑옷과 전차, 군마를 스스로 준비했다. 경제력이 있는 귀족들은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기병이 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적은 시민들은 중무장 보병이 되었다. 특히 평민들이 중심이 된 중무장 보병이 로마의 핵심 군사력이 되면서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도 강화됐다. 로마에서 출세하려면 '출세의 사다리, Cursus Honorum'을 타고 올라가야만 했는데 전쟁에 참여해 공을 세우는 것은 성공의 필수 요소였다. '국가 방어에 더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정치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것이다. 로마의 정치체제를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권리와 책임은 함께 간다. 존경을 받고 군림하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를 기본 신조로 삼았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 건국부터 동로마 멸망까지 무려 2206년의 역사를 자랑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은 대부분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북유럽 등이 대부분 이런 문화를 자랑한다. 반면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과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은 포퓰리즘 성향이 강하다.

현대 세계에서 책임과 의무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국방과 세금이다.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게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현 주소는 어떨까? 세금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상공인,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낸다. 특히 기업인과 상공인들은 생과 사의 경계선상에서 늘 생존투쟁을 벌이는 존재들이다. 한국에서는 묘하게도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약하다.

오히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치인과 관료들, 그리고 기부금이나 세금에서 나오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각종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훨씬 세다. 최상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 공로자'라고 하면서 더 큰 목소리를 낸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려면 일단 자신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 후 나서는 게 옳다.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얘기인데, 전문적인 시위꾼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의 뒷다리를 잡는 사람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애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자'고 외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놀부 심보와 같다고 봐야 한다. 그들에게서는 손기정 옹과 같은 정신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올해는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실천하고 자기 몫 이상을 해내는 사람들의 발언권이 더욱 세졌으면 좋겠다. **OLP**



전통과 문화로

세대간 융복합,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글. 이판정
OLP 4기
콤피아 이사회의장

중 · 고 · 대학생과 장년 노년층이 늘 함께 즐기는 공간이 있다. 그곳이 어딜까?

풍석 서유구 선생이 저술한 임원경제지에는 선비문화의 정수를 담은《유예지》가 있다. 유예지에는 여섯 가지 재능인 육예를 소개한다. 예가 기능(재능)이라는 정의는 유예지 서문에 나온다. 유(遊)는 "물고기가 물에서 유영하듯 노닐다."로 설명한다. 선비문화의 정수인 유예지의 육예는 선비재능 웰빙 재능으로 현대적 해석이 가능하다. 중고 대학생과 장년 노년층이 하루 종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전국 400여개의 국궁장이다.

국궁장은 남녀노소 없이 10대부터 90대까지 늘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선선비가 갖추어야 할 육예와 융합을 하면 문화와 전통이 제4차 산업에 필수적인 창의적 인문학적 인재육성과 그로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터전으로 가능하다.



조선시대의 육예〈6가지 재능—예 · 악 · 사 · 어 · 서 · 수〉를 수천 제곱미터 넓은 공간인 전국의 4백여 개 국궁장을 통해 법고창신(法古創新,옛것을 현대의 것으로 새롭게 계승)하면 전국의 국궁장은 선진시민을 위한 육예의 전당으로 또 청년층과 은퇴 세대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전통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세대와 은퇴세대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혁신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육예는 4차 산업혁명이 만든 제4차 산업시대〈융복합시대〉의 글로벌 인재에게 꼭 필요한 기본소양이자 미래인재의 바탕이 되는 지 덕 체를 겸비한 청소년 글로벌 경쟁력 향상의 진수이다. 이처럼 전국의 400여개 국궁장은 오랜 전통이, 융복합 산업인 제4차 산업시대 현대적 문명의 이기와 융합하여 현대인의 심신 단련을 위한 국궁장을 넘어 '선비재능의장'으로, 수백 년 전통의 진수를 잇는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또 전통과 지혜를 전하는 '중 장년 및 노년층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다시 태어 날 수 있다. 전국 각 구/시 별 학생 수에 비례한 국궁장이 갖추어 지면, 청년은 장년 노년층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영상편집 등을 가르치는 교육의장'으로 장 · 노년층은 '전통과 육예 및 지혜를 청소년층에게 지도하고 전수하는 장'으로, '세대 간 융복합의 장'으로 시너지를 내는 소중한 공간으로 재창조 될 것이다.

산업세대는 허허벌판에서 3만 불을 만들었다. 미래세대가 6만 불 세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따라가는 나라에서 리드하는 나라로, 받는 나라에서 기여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 인재에 대한 교육이 단순 입시 교육을 벗어나 오랜 역사가 축적한 전통의 힘으로 법고창신할 때 가능하다. 오랜 전통문화는 그 자체로 인고의 세월을 겪으며 축적한 국가적 유산이다. 전통적 큰 유산을 멀리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융복합은 산업간 융복합까진 이루고 있지만 청년층과 장년 노년층의 융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인류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갈수록 세대 간 괴리를 가중시키어 장년 노년세대의 지혜와 경륜과 인적네트워크 등의 자산이 청년세대에게 전수되지 않고 사장되기 쉬운 사회구조이다.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유기적 선순환이 되지 않고 단절 될 수 있는 사회적 과제가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큰 숙제이다.

그 숙제는 우리의 전통 국궁장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어 보





인다. 바로 청년층과 장년, 노년층이 매일 함께하고 즐기는 공간이 전국의 400여개 국궁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초 · 중 · 고 · 대학 정규 과정에 전통을 잇는 인문학 교육인 육예를 넣어 제도화 한다면, 제4차 산업시대 우리 청소년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은퇴세대의 육예강사 등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도 안성맞춤이다. 또 이를 한류문화원과 함께 6예의 전당인 국궁장을 세계화 한다면 전 세계 한민족 구심체역할 및 지구촌 각국의 문화교류의 장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늘 함께하는 공간이기에 글로벌 일자리를 추천받는 공간으로도 거듭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는 가치창조적 영역에서 생긴다. 5천년 전통과 문화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 교육에 활용된다면 한류가 춤과 노래만이 아닌 문화적 한류로 각국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는 6만 불 시대를 꿈꿀 수 있다.

또 이국땅에서 피땀으로 터전을 닦은 각국의 한인 은퇴 세대에게 모국과 현지를 잇는 문화가교의 장소가 되고, 은퇴 후에도 그 나라 발전을 위해 기여하면서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세계화를 도우는 교류의 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육예와 함께하는 각국의 궁국장은 전 세계 한민족 구심체 역할을 넘어 지구촌 발전을 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육예의 예(禮)는 글로벌 선비가 갖추어야하는 각국의 예와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악(樂)은 음악(현대/고전음악 · 성악 · 국악)과 악기로, 사(射)는 활쏘기 즉 국궁으로, 어(御)는 수레몰기인데 현대에 와서 음을 따 어학으로, 서(書)는 독서와 붓글씨 글쓰기 수묵화 등으로, 활터의 넓은 공간은 무엇보다 독서의 공간, 정보 지혜 교류의 공간, 문화창작 등 예술의 공간으로 제격이다.

마지막 수(數)는 컴퓨터로 국궁장인 활터는 청년층과 장년 노년층이 함께 모이는 세대 간 융 복합 공간이 되었기에 청년들은 컴퓨터를 장년 · 노년층에게 가르치고, 은퇴 후 장년 노년층은 경륜으로 쌓은 지혜를 청년들에게 전하고 붓글씨 수묵화 등을 청년들에게 익히게 도울 수 있는 장소이다. 즉 디지털 세대에게 인문학을 겸비하는 디지털선비로 품격을 갖추게 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전통으로 승화 할 수 있다. 각국과 각 민족이 활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없지만 그것을 전통으로 보존하며 현대의 스포츠로 발전을 시켜 전국적 규모로 운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궁장은 경륜과 지혜, 문화와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장으로 21세기 청-년과 장, 노년이 늘 함께하며 품격 있는 삶을 이어 가게 하는 소중한 전통 공간이다.



예 : 디지털선비가 갖추어야하는 각국의 예와 문화
악 : 음악 및 악기 / 동서양 악기
사 : 활쏘기 / 궁도, 초중고 교과목에 청소년 지덕체 위한 교양과목
어 : 어학, 언어는 생활이기에 문화교류를 하면서 외국인과 함께 육예수련
서 : 독서, 붓글씨, 수묵화와 그림, 디지털 선비로 인문과 예체능 겸비
수 : 컴퓨터 및 ICT, AI 등 기본적인 디지털 생활 지식 함양

산업시대 골프가 정보교류 스포츠로 세계화 되었다면 지식정보 산업시대 국궁을 육예와 함께 문화정보교류 스포츠로 세계화 하자. **OLP**

[참조 : 유예지]

REC

기자 노릇까지 패널 토론자에 넘기는 시사프로들



글. 홍승일
OLP 6기
중앙일보디자인 대표

뉴스인지 예능 프로인지 헷갈리고

점잖지 못하고 가볍기 짝이 없다. 요즘 방송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늘었다. 스트레이트 뉴스와 해설기사, 팩트와 논평이 뒤섞이는가 하면 흥미나 공분을 사기 위해 초를 듬뿍 치기 일쑤다. 기자생활 할 만큼 한 사람으로서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물론 훌륭한 보도물과 언론인이 훨씬 많다. 기본이 안 된 뉴스물 이야기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하지만 매체 경쟁이 심해질수록 불량뉴스가 점점 눈에 자주 띄는 게 현실이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 파동만 해도 그렇다. 미디어가 정색하고 냉철하게 덤빌 구석이 다분했다. 하지만 신문 · 방송 할 것 없이 앞다퉈 핏대만 올리고, 비난의 '표적'을 거꾸러뜨리겠다는 승리욕에 허겁지겁하다가 이해상충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발본색원 동력을 낭비했다.

저널리즘 기본 안 된 보도물 늘어

저널리즘의 기본이 아쉽다. 노벨문학상의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는 400여 편의 기사와 칼럼을 남긴 민완 기자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위험한 전장을 종군기자로 누비면서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 인터뷰까지 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등 쉽고 간결한 그의 소설 문체는 기자 필력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좋은 글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쉽고 간결하게 쓰라" 는 말 대신에 "아는 것만 쓰라"는 조언을 하곤 했다. 나를 포함해 요즘 기자들이 헤밍웨이의 코치에 얼마나 충실한지, 과연 아는 것만 쓰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한다.

기막힌 일, 일단 가짜뉴스 의심을

사실 확인이 덜 된 듯한 작문성 뉴스가 여전히 판을 친다. 단독 · 특종이란 간판을 달고, 또는 취재원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희한하기 짝이 없는 '관'씨 성의 취재원들, 가령 청와대 '관'계자, 재계 '관'계자 같은 익명은 늘어만 간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보인다' 같은 어정쩡한 마무리의 남발도 눈살 찌푸리게 한다. 어쩔 수 없는 익명보호를 제외하고는 취재기자 편의주의다. 시간이 흘러 허위와 날조 소리를 듣는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는 이런 부류의 보도에서 많이 나온다. 기자들 탓만 할 건 아니다. 이런 불량기사, 가짜뉴스는 신속한 뉴스, 재미난 뉴스를 원하는 독자 · 시청자, 또 이에 충실히 부응하는 상업

주의 언론의 뇌동, 또 기자, 언론사, 미디어 수용자 3자 간의 밀당 속에서 양산된다.

신문 · 방송 같은 전통언론이 포털이나 SNS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건 정확한 1차 사실의 전달 기능이다. 그런데 언론사들은 그런 핵심적 권도를 스스로 방기하곤 한다. 일부 방송의 시사토론 프로를 보자. 진행자가 "자, 김아무개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자주 본다. 뉴스 1차 팩트의 정확한 전달은 엄연히 해당 언론사에 취재기자가 하거나, 취재 직무를 상당 기간 영위한 프리랜서 등이 직접 취재해서 또는 1차 자료를 가공해서 독자나 시청자에 전달하는 것이 정도다. 그래서 온라인이 발달하기 전만해도 "신문에 났다" "9시 뉴스에 났다"는 것이 진실의 큰 요건이 되기도 한 것이다. 2차, 3차로 퍼 나른 팩트는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진다.



요즘 변호사를 비롯해 교수 · 정치인 · 연구원 · 시사평론가 등이 시사프로의 단골 패널로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선 전문가일지언정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는 아니다. 기자가 전하는 팩트를 토대로 심층분석 등 의견을 개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교통정리 시스템을 언론사 스스로 허물고 있다. 골동품 가게로 보내졌을 법한 해외통신원 제도가 작년부터 제작비 절감을 이유로 일부 시사프로에 등장한 것도 기자의 역할을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이름이 튀는 시사프로일수록 일방적 이념의 잣대로 뉴스를 재단해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 계층을 뭉개기 일쑤다. 뉴스의 정치화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등장하고 치정 같은 흥미 요소가 가미된 스토리는 질질 끌면서 선정적인 담화를 엿가락처럼 늘려간다. 뉴스의 예능화다. 오죽하면 어떤 뉴스 전문채널은 새 뉴스 프로를 선전하면서 "빈정거리지 않는 뉴스 프로"를 표방했을까.

팩트와 논평의 야합은 촛불 시위 이후, 그리고 새 정부 들어 국론 분열이 장기화하면서 그 추세가 더욱 심해졌다. 팩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뉴스와 언론사 또는 저널리스트의 가치관이 담긴 해설보도가 엄격히 분리되는 건 저널리즘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런데 9년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진보정권이 들어선 뒤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보수 · 진보 간 진영 논리가 극심해지면서 언론보도의 팩트와 논평 뒤섞임 현상이 심해졌다. 뉴스를 날 것으로 내놓으면 손님을 끌지 못해서 그런지 조미료 듬뿍 쳐서 내놓는 태도가 공공연해졌다.

신문 · 방송의 총체적 위기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포털이나 SNS · 유튜브 같은 디지털 뉴미디어의 득세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기에 앞서 전통언론이 자해(自害)를 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작금의 위기를 세상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올드 미디어의 자화상을 거울에 비추어 봤으면 싶다.

사족 하나. 이것 역시 언론사 밥 먹는 사람으로서 자해에 해당하겠지만 OLC 동문께 팁 아닌 팁 하나 드린다.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스토리, 욕 튀어나올 정도로 천인공노할 스토리는 일단 의심해 버릇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은 아니라도 20~30%의 과장은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 각종 언론매체 기사 중 크고 작은 오보를 모은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포털에서 찾아보시라. 부정확한 기사, 왜곡된 기사가 어떤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지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OLP

몸으로 바퀴를 굴려나가는 일은 복되다



글. 이상철
OLP 1기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장

자전거 라이딩은 근래 나의 삶 속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일 저녁 무심천을 따라 청남대를 다녀오기도 하고 미호천 쪽으로 가면 합강공원이나 세종시 왕복이 가장 즐겨 타는 코스다. 동호회의 정기 모임이 있는 주말이면 수풀이 예쁜 산이나, 바닷바람 시원한 섬으로 멀리 나가기도 한다. 밖으로 갈 경우에는 어김없이 맛난 음식과 막걸리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든다. 어떤 경우라도 행복감은 충만하다.



단순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수준을 넘어 자전거를 타는 그 자체가 큰 즐거움이라는 것은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처음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건 2012년 무릎 연골판 수술 후 재활을 위해서였다. 의사는 실내 자전거를 권했지만,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기는 답답하고 지루한 그야말로 재활운동일 뿐이었다. 자전거를 한 대 사서 주로 한강변의 자전거도로를 타기 시작했고, 조금씩 멀리 아라뱃 길까지 오가며 거리를 늘렸다. 그러다가 좀 더 멀리 라이딩을 하고 싶은 생각에 접이식 자전거 브롬톤을 장만하여 차에 싣고 여행을 가서 인근 라이딩을 즐겼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니 거기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의 자전거 인생에서 일대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찾아왔다. 지인이 라이딩 총무로 활동하고 있던 자전거 동호회 CCC를 만나게 된 것이다. CCC는 일본 돗토리현으로 해외원정 라이딩을 계획하고 있었고, 나는 게스트로 참가하여 3박4일을 함께 했다. 아름다운 해안으로 유명한 돗토리현의 미호만(美保灣)을 따라 풍광을 만끽하며 달리고, 일본 10대 명산중 하나인 다이센(大山)에서는 10㎞의 계속되는 오르막길을 심장과 허벅지가 터져나가는 듯 힘들었지만 끝까지 완주해낸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합류하게 된 자전거 동호인 모임 CCC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 동호회와 함께 한 라이딩을 통해 절대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추억들이 켜켜이 쌓이고 또 쌓였다.

제주도 환상 자전거도로 일주, 슬로시티 전남 신안 증도와 변산반도, 강원도 화절령, 산음자연휴양림, 신시모도, 영흥도, 섬진강, 대마도... 그중에서도 아마 유례없이 화절령을 미니벨로를 타고 넘은 일과 철인 3종 경기에 릴레이팀으로 참가해 완주 메달을 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은총이 철인 3종 경기 참가는 자전거 타기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대회참가를 위해 서울 남산 · 북악산 길과 시화방조제 제방도로에서 훈련도 하고 좀 더 전문가처럼 탈 기회가 되었다. 2018년 10월에는 홍콩 사이클로톤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홍콩도심과 해안도로를 달리는 국제대회로 5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자전거 축제였다.

자전거도 종류별로 구색을 갖췄다. 화절령을 다녀와서 MTB를 사고, 은총이 철인 3종 경기 출전을 위해 싸이클을 구비했다. 이젠 라이딩 상황에 맞춰 자전거를 골라서 갖고 다닌다.

자전거 국토종주와 4대강 종주를 진행 중이다. 인천 아라뱃길부터 한강, 새잿길까지 스탬프를 찍었고 낙동강 구간을 남겨두고 있다. 무엇이든 새로운 목표를 갖는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설렘이자 두려움이다. 국토종주를 어서 마무리 짓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서려 한다. **OLP**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땅위의 모든 길을 다 갈 수는 없다 해도, 살아서 몸으로 바퀴를 굴려나 가는 일은 복되다"

- 김훈의 <자전거여행> 중에서

아프니까 살아 있는 것이다



글. 문규선
OLP 13기

설계도 없는 인간의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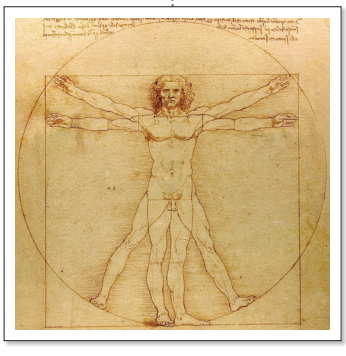
40억 년 전 바다로 부터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최초 단세포 이었던 생물들이 합쳐져 자연선택을 통한 기나긴 진화의 시간을 통해 지금의 인간이 있게 됩니다. 1년으로 비유하면 인간의 시대는 12월 31일 자정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 긴 시간은 질병과 극복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에만 따라야할 고착된 과정이었다면 인간은 아마도 지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흑사병에서부터 메르스에 이르는 500년의 시간은 그다지 길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자연선택이었습니다. 아직 인간은 생존해 있고 아파합니다. 지금도 설계도 없이 어설픈 땜쟁이 같이 유연하게 진화하는 생명체입니다.

나는 나만의 특성을 가진 고유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수억 년의 세월을 이어 온 생명의 흐름 속에 놓인 존재이기도 하고, 미생물을 비롯한 온갖 생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사회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는 몸을 쓰며 살아가고, 삶은 그런 몸과 마음이 서로 얽혀 돌아가며 만들어집니다.

-신근영, 『사람은 왜 아플까』 p10

아픈 것은 운명인가, 선택인가?

하나도 같은 외모가 없듯이 하나도 같은 몸은 없습니다. 다르게 만들어진 5장 6부와 다르게 작동하는 몸의 시스템을 갖고 태어납니다. 부모와 선대의 가족력으로 나의 운명을 가늠이나 하듯이 판사가 된 의사는 굵은 펜으로 알 수 없는 글자를 써내려갑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원인 없는 아픔도 없습니다. 운명은 극복해야 한다고 수많은 선택의 기회에 도전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있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우스의 주인공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디스는 아들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려 했다. 그가 아버지가 인간이기에 면역을 부여하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아킬레우스는 어머니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머리와 어깨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있다. 평범한 목욕이 아니란 건 분명히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이 닿은 발뒤꿈치는 완전한 면역이 아닌 완전한 위험의 상징이 되었다.

-율라바스, 『면역에 관하여』 p10

우리가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 같은 '단점'을 인식하고 받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나가는 배의 구멍이 어디에서 샐 것인가를 미리 알고 위험을 피해야 하듯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알 때가 되면 우리는 이미 긴 항해를 하고 나서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극복해야 할 '무엇'이 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담보로 하는 거대 세력은 자본화하여 인간의 약점을 치밀하게 파고 듭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해명

하기 이전에 결과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에 급급하지요. 자본화된 의사결정자는 자본이 부여한 목표와 인센티브가 아킬레스가 되어 양심을 멀리하고 염치를 버립니다. 이미 종교가 된 관례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 합니다.

디스크라고 하는 진단 90%는 모두 허위입니다. 수술을 팔고 약을 팔아 빌딩을 올립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맹장염이 머리카락이나 돌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도, 편도선은 수술을 해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도 모두 잘못된 종교 같은 것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면 우리 몸의 또 다른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 혈압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80 이어야 한다고 하며 슬그머니 그 기준을 130으로 올려 시장을 넓히려는 것이 자본의 힘이라는 것을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사라지는 사회는 또 다른 아픔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아픔으로 알 수 없게 미디어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마취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극복해야 할까요? 운명이 아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인가요? 40억 년 전 부터 생명을 이어온 자연 선택의 지혜를 꺼내어 봅니다.

1. 균형(Balance)잡힌 몸과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있습니다. 2017년 두산베어스의 오재원의 타율은 2할2푼이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자비(自費)를 들여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격 코치 덕 래타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거짓말 같이 1년이 지난 현재 오재원의 타율은 3할 3푼입니다. 정신이 몸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재원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균형, 타격의 리듬감 유지, 그리고 목표인 ball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on-going) 것이라고.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유연함을 갖기 위한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늘 정신과 몸을 이완시켜야 한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이깁니다. 초록의 살아 있는 나뭇잎은 어린아이 볼 같이 부드러우나, 떨어진 낙엽은 딱딱해서 이내 부서집니다. "柔弱勝剛强(유약승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깁니다. (노자, 36장) 마음을 비우고 몸속의 독소를 비워 유연한 정신과 몸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르밟고 걷는 산책, 느릿하게 호흡으로 하는 요가, 명상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3. 그리고 정말 즐겁고 탁 트인 나와의 만남을 한 번씩 하라.

소소한 만남이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탁 트인 만남으로 속상했던 마음도 풀고 잘 모르던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기도 하고,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곳에 가보기도 합니다. 좋은 책, 음악, 영화 등을 추천받거나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도 먹고, 좋은 인연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내 안의 경험들이 풍부해지고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아! 거기 좋다"하는 그 지점.

지리산 천왕봉도 좋고, 강릉 앞바다에 서서 마주하는 한 잔의 커피도 나와의 좋은 만남입니다.

아픈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삶이 수단이 되면 아픕니다. 마음의 감정과 현실의 체험에서 괴리감이 생기면 아픕니다.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타인에만 집중하면 아픕니다. 몸의 균형이 깨지거나 바이러스의 침투에 저항이 안 되면 아픕니다. 과유불급의 지혜를 잃으면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살아 있는 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간과하면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병을 병으로 바로 알면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아침 안 먹고 편의점 커피라테를 들고 나가는 아들과, 비스듬하게 기대서 TV보는 아내를 지켜보면서도 이렇다 할 이야기도 못하는 나…….

삶은 어차피 운명이 아닌가 생각하며 씁쓸한 마음을 갖는 아침입니다. OLP



▶ 최근 출판된 필자의 신간

전설의 우담바라 목격, 과연 행운이 올까?

세탁해놓은 운동복을 찾으러 다용도실에 가던 중 아파트 주방 쪽 창문에서 새끼손가락 끝마디만 한 흰 얼룩을 얼핏 보게 됐다. 관리실에서 아파트 전체 유리창 청소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새 뭔가에 오염됐나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색의 작은 이끼 같은 게 떼로 붙어있다.





글. 고철종
OLP 7기
SBS 논설위원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기도 했는데, 어디선가 봤던 것이다. 우담바라다. 불교에서 3천년 만에 한 번씩 핀다는 전설의 꽃. 다른 여느 종교적 상징이 그렇듯 현대에 와서는 풀잠자리 알로 판명되면서 그 신비감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요즘도 좋은 징조를 알리는 것으로 여겨지며 사람들은 이를 발견할 때마다 호들갑을 떤다.

상징이란 묘한 것이다. 검증된 게 아님을 알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상징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맨 처음 우담바라를 본 건 7,8년 전 당시 소유 중이던 SUV 차량의 앞문 손잡이 근처에서다. 오래 되서 탈색되고 상처 난 철판 위에서 미세하고 하얀 뭔가가 한들거리는 모습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니 행운의 우담바라란다. 기대감이 솟아났다. 좋은 일이 생길런가?

일이 생기긴 생겼다. 우담바라 목격 며칠 뒤 그동안 멀쩡하던 차가 미션에 문제가 생겼다. 큰 비용을 내고 고쳤지만 이후 고장이 잦아지면서 결국 헐값에 팔아치우고 말았다. 이게 뭐람? 행운의 우담바라가 배신을 때리다니. 우담바라는 한번 본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지, 그 뒤 새로 산 차 운전석 창문에 다시 나타났다. 한 번 당해봤기에 경계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도 이번에는 행운을 갖다 주겠지 또 한 번 믿어봤다. 그리고 몇 달 뒤 8년 간 잠잠하던 협심증 증세가 도져 119에 실려 갔다. 우담바라가 내게는 불행의 징조였던 것이다.

그 배신의 우담바라가 우리 아파트 창문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예전의 악연을 생각하니 은근히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찬이 살펴보니까 제법 고운 구석도 많다. 여러 각도에 따라 초롱꽃 같기도 하고 쌀알 같기도 하다. 작은 바람에도 줄기를 흔드는 모습이 앙증맞다. 어쨌든 좀처럼 보기 힘든 녀석이니 아이들에게 보여줄 요량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 귀여운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우담바라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해석하기 나름이란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과거의 불운에 대한 재해석이 시작된 거다. 차를 오래 탔으니 자연히 고장이 났고,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수리했으니 다행이었다. 잦은 수리를 계기로 헌 차를 팔고 오랫동안 염두에 뒀던 새 차를 샀으니 더 좋은 일이었다. 때마침 여윳돈까지 있었으니 금상첨화다.

몸에 병 난 것도 그렇다. 처음 협심증 시술받은 지 7,8년이 지나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고 과음에 다 격한 운동을 반복해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때문에 경미한 협심증 증세가 다시 찾아왔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끝에 원인을 알아내 치료했다. 결국 우담바라는 내게 건강을 다시 챙기라고 경고했고, 덕분에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행운을 갖고 온 셈이다.

결국 행운과 불운은 마음먹기에 따라 양쪽의 무게가 달라지는 게 아닐까. 우담바라라는 상징을 행운으로 바라보면 행운이 보이고, 불운으로 여기면 불운만 도드라져 나타난다. 내 해석의 잣대를 긍정으로 맞추어 놓으면 세상도 긍정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주 목격될 우담바라를 앞으론 행운으로 바라보려 한다.

우담바라가 5년 만에 찾아왔으니, 5년내 가장 큰 행운도 곧 다가올 것 같다. 그것도 낡은 차의 녹슨 철판이 아니라, 투명하고 훤한 통유리 창에서 꽃을 피웠으니 그 행운의 향기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퍼졌으면 좋겠다. OLP

NORWAY

첨삭되길 원하는 여행노트
- 노르웨이 편

바이킹의 후예 "자유"로의 항해와 국민소득 8만불



글. 안경호
OLP 12기
동서식품 미래전략실 실장

지난 6월에 집사람과 노르웨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느낀 점을 정리하고자 했는데 차일피일하다가 지금에서야 결론을 집니다.

노르웨이 국민소득은 8만불이 넘고 몇몇 도시는 20만불을 기록하기도 한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다녀와서도 많은 분들이 노르웨이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방문하고 싶은 나라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여행노트를 통해서 주위와 공감하고 나누면서 서로의 지혜에 첨삭하고자 하는 가벼운 마음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럽 하면 자유와 책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이킹후예로 알려진 노르웨이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와 먹는 이야기 등도 하고 우리도 거북선을 통하여 국민성과 특징을 설명했듯이 바이킹선박을 보고 느낀 점도 있기에 이 점도 전할 생각입니다

1. 노르웨이 도로에는 신호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수도인 오슬로 중심부에서는 신호등을 간간하게 볼 수 있으나 조금만 벗어나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교차로는 둥근 원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라운드 어바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널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를 건너가려고 하면 글쎄 멀리 있는 차량이 먼저 정차하는 겁니다. 처음엔 신기한 마음에 이들의 준법정신을 칭찬하면서도 그래도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증은 오슬로 교민을 만나고서 풀렸는데 답변이 재미있습니다. "여긴 자유가 넘칩니다. 도로도 자유롭게 차가 주행하지만 만일 그 자유만을 만끽하고 무법하게 운행하다가 접촉이나 인사사고, 속도위반 등에 걸리면 그 책임은 크지요. 벌금, 보험처리에 따른 고비용, 이어지는 각종 법률소송 등 놀랍죠. 그래서 스스로 도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겁

니다.” 바로 자유와 책임이지요. 오랜 기간 걸친 공동체내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자유는 극대화하되 거기에 수반하는 책임을 잘 대응하여 현재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괜히 국민소득 8만불이 아닌 것 같습니다.



2. 노르웨이에서는 전선줄과 전선 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해 원유로 유명한 산유국이긴 하지만 사실 주된 수출품은 전기랍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소를 많이 볼 수 있고 질 좋은 전기를 싸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물론 그 전기를 이웃 덴마크 등에 수출도 한다고 합니다. 전기는 높은 산악과 많은 하천을 이용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합니다. 곳곳에 수력발전소가 있고 생산된 전기를 모으고 배분하는 전선 탑과 전선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전선 탑이 마을 중간에 있고 그 전선줄이 버젓이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라면 기피시설 그리고 위험시설로 여겨져서 자기 집주위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인데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배경에 관해서는 현지인에게 자세하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았지만, 뭐가 이상하냐는 반응이라서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생각하기를, 도로 건널목과 신호등처럼 해당의 도시지자체와 마을단위에서의 활발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공동체 운영시스템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자유의 사이에서 복지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인데 수준 높은 밸런스감각입니다.

3. 노르웨이 사람들은 오픈 샌드위치를 즐겨 먹습니다.

빵, 감자, 대구나 청어 등과 각종 베리 등을 적당하게 빵에 얹어서 먹던데요 재미있는 것은 샌드위치인데 빵 위에 토핑해서 그냥 먹습니다. 미국식 두 겹 샌드위치에 익숙









한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입니다. 이의 배경은 듣지 못했습니다. 글쎄 날이 추워서 빵보다 토핑을 더욱 많이 하는 습관일까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감자의 부드러움과 베리의 신선함은 두고두고 입가에 남습니다.

4. 이제 바이킹 선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바이킹 선박은 길이가 20미터에 폭은 5미터 정도이고 보통 20명 정도 승선하고 항해에 나가면 한 달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물론 그린란드까지도 갔답니다. 그런데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선원의 우두머리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선장실이 없습니다. 그냥 평평하고 오픈된 공간만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유오피스입니다.

두 번째는 식량을 비축하는 장소도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항해기간이 길 텐데……. 이상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대구나 청어 등을 현지에서 조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원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노를 젓는 세일러이지만 교전 시에는 군인입니다. 영화에서 보았듯이 바이킹선이 반짝거리는 것은 선원 옆에 비치되는 방패가 햇빛을 받아서 그런답니다. 반짝이면서 움직이는 괴물체가 바로 바이킹이니 비주얼 적으로 참 강한 공격면모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높은 고를 가지고 있는 선박의 내부형태인데 구성원 모두가 사방 좌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는 날렵하고 길지만 오픈 되고 수평적이라서 누구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항해를 위한 모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구조이니 선장의 리더십과 선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쉽게 케미되고 목표설정 역시 스피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킹 박물관에서 보았던 그 선박을 통해 많은 느낌을 받았고 또 여행하면서도 그 선박사진을 가끔 꺼내보곤 했습니다.

선박의 지휘자를 위한 별도의 사이트가 없는 바이킹선, 장기간 운항을 하여야 하지만 식량비축창고가 없는 바이킹선, 노를 젓는 세일러이지만 전투 시에는 군인으로 변환되는 유연한 생각, 선박 구성원 모두가 목적한 방향을 볼 수 있는 수평적 갑판의 선박구조.

이런 배경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책임을 규정하고 신호등도, 전선 탑의 설치도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을까요.

바이킹의 "자유"로의 항해를 바라본 이번 노르웨이의 감흥은 서울시청에서 덕수궁을 바라보면서 이어집니다. 나라를 위하여 석조전을 세우려 하지만 건축경비가 부족했던 고종의 마음을 그려보면서요.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자유"로의 항해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어지는 여행노트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함으로 주위와 공감하고 또 첨삭되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OLP**

www.krs.co.kr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은
새로운 미래,

한국선급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 Digital Services
- Ship Classification
- Certification Services
- Naval Services
- Energy & Environmental Services
- Information Technology
- R&D
- Academy



KR
KOREAN REGISTER



New Zealand

뉴질랜드 여행기

글. 박상주
OLP 9기

터키블루 빛깔로 반짝이는 호수가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서 있었다. 보라색과 연분홍, 흰색 등으로 알록달록 치장을 한 루핀 꽃이 교회 주변을 환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뉴질랜드 남섬 테카포의 명소 중 하나인 '선한 양치기 교회'였다.

1935년에 지어졌다는 석조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기껏 20여명 정도가 예배를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 하나로 불리는 이유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 두 세 발자국이나 걸었을까. 교회 정면의 통유리를 통해 테카포 호수의 모습이 한 눈으로 들어왔다. 은빛 물결로 반짝이는 호수와 흰 구름이 점점이 떠 있는 푸른 하늘, 멀리 만년설을 머리에 인 채 병풍처럼 호수를 감싸고 있는 서던 알프스 산맥의 영봉들! 창조주께서 유독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내신 한 폭의 산수화였다. 교회의 통유리는 창조주의 명작을 담아내는 액자 역할을 하는 셈이었다. 이제는 고목 껍질처럼 무뎌진 걸로만 알았던 장년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요정들이 사는 동화의 나라인들 저토록 아름다울까!









버킷 리스트에 올라있던 뉴질랜드 여행을 다녀왔다. 빽빽한 고층빌딩들과 거리를 메운 인파와 자동차, 하늘을 시커멓게 덮은 미세먼지 속의 서울에 비한다면 뉴질랜드는 어디를 가나 천국이었다. 공기는 달디 달았다. 가는 곳마다 맑은 호수가 넘실거렸다. 짙푸른 초원 위에는 양과 소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깨끗한 자연 풍광이 펼쳐졌다. 하긴 뉴질랜드 국토의 10% 정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던가.

아오라키-마운트 쿡 국립공원(Aoraki-Mount Cook National Park) 트레킹을 가는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비가 조금 온다고 세계 최고의 트래킹 코스를 포기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 우비를 둘러쓰고 후커 밸리 코스를 오르기 시작했다. 웬만큼 비가 내리더라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잘 정비된 길이었다. 길가의 이름 모를 꽃들과 풀과 나무들이 물기를 머금은 채 반짝이는 모습이 한층 싱그러워 보였다.

까마득하게 깊은 계곡 아래로 빙하 녹은 물이 우당탕쾅쾅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 줄기 흔들다리가 계곡 위로 까마득하게 걸려 있었다. 출렁출렁 다리를 건너 모퉁이를 돌아서자 거대한 빙산이 자태를 드러낸다. 약 700㎢ 넓이의 아오라키 마운트 쿡 국립공원은 40%가 빙하로 덮여 있다.

뉴질랜드 남섬의 거대한 빙하는 태평양의 습한 공기와 이를 몰고 오는 편서풍, 우뚝 솟은 서던 알프스가 만들어내는 합작품이다. 태평양의 습한 공기를 잔뜩 머금은 편서풍이 서던 알프스 산맥을 넘다가 정상 부근에서 많은 눈과 비를 뿌린다. 이 눈과 비가 쌓이거나 얼어서 두터운 빙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거대한 설산인 아오라키-마운트 쿡을 바라보며 빙하 계곡을 걷는 이 기분을 어찌 필설로 옮길 수 있으랴.

깎아지른 기암절벽과 그 사이로 떨어져 내리는 다양한 모습의 폭포를 감상하는 크루즈 여행 명소인 밀포드 사운드, 프랑스풍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아카로아 항구,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진 크라이스트처치, 리마커블 산맥으로 둘러싸인 와카티푸 호수변의 퀸스타운…. 뉴질랜드의 도시들은 어디를 가나 저마다의 매력을 듬뿍 발산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버킷 리스트에 '뉴질랜드 여행 다시 가보기'를 써넣어야 할 것만 같다. **OLP**

일본 소도시의 숨겨진 매력

영화 '우동'의 도시 다카마츠와 예술의 섬 나오시마 2박 3일 여행기



글. 임태형
OLP 7기
CSR Wide 대표

작년 봄 일본 다카마츠로의 여행. 나에게는 여전히 잔상이 강하게 남아 있는 여행이다. 저렴하게 나온 에어텔 상품이 계기였지만, 일 때문에 늘 각자 여행을 하던 우리 부부는 모처럼 함께 하기로 하고 주저 없이 예약 버튼을 클릭했다.

저가항공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소도시에도 항공편이 속속 생기고 여행 메뉴의 선택선이 다양해졌다. 다카마츠도 그 중 하나인데 유명한 랜드마크는 없어도 차분함 속에서 소소한 매력을 갖춘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우동'의 배경 도시로 우동의 본고장이라는 점, 그리고 나오시마는 황폐화된 섬에서 예술의 섬으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였다.

다카마츠(高松)시는 일본 시코쿠(四國) 지방 카가와현(香川縣)의 행정 중심 도시다. 인구는 42만 명 정도로 한국의 구미시와 비슷한 규모이다. 시 오른쪽으로 나란히 사누키(讚岐)시가 있다. 우동하면 떠오르는 사누키는 카가와현의 옛 지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현재의 사누키시는 옛 지명을 살리고자 2002년 5개의 정(町)을 통합하며 새롭게 태어난 도시라고 한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라 많은 곳을 둘러볼 욕심은 버렸지만 숙소에 짐만 던져두고 곧바로 오후 일정에 들어갔다.

우동 투어

오후 1시 2분, 숙소 근처의 고반쵸(五番町) 정류장. 애니 캐릭터로 장식된 우동버스를 타니 활기 넘치는 일본 가이드가 우리를 맞았다. 우동투어에는 평일 오전 또는 오후 일정의 반일 코스와, 주말/공휴일의 1일 코스가 있다. 어느 코스든 2곳의 우동 가게만 방문하며 나머지는 명소 관광으로 채워진다. 반일코스는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2곳의 우동가게를 방문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후 2시의 공복감 덕분에 우리는 서로 다른 메뉴를 주문해서 가게 2곳에서 4가지 우동의 맛을 골고루 맛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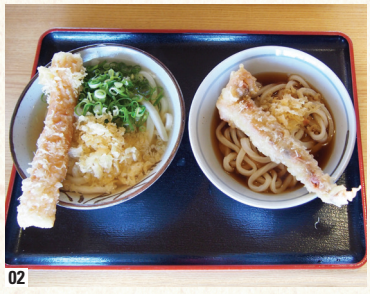
인구 42만 도시에 우동가게만 900개가 넘는 다카마츠에서 겨우 4가지 맛을 보고서 식후 평을 하기 에는 조심스럽지만, 모양새나 맛에서 기교를 부리지 않아 좋았고 우동의 본고장에서 먹는다는 분위기에 젖어 맛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튀김까지 올려서 300~500엔 정도로 짜장면보다도 더 착한 가격도 추가되는 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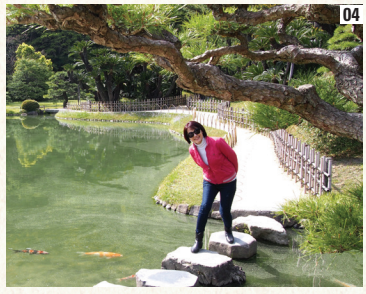
시간이 허락한다면 영화 '우동'에 등장하는 다카마츠시 곳곳의 영화촬영 장소를 찾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될 것 같다. 우동투어에 관한 정보는 고토산버스 홈페이지(http://www.kotosan.co.jp/sp/)에서 확인과 예약이 가능하다.

2곳의 우동가게에 더해 '나카노(中野) 우동학교'를 방문. 예약을 통해 우동 만들기 실습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우동박물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볼거리들을 감상하고 사진 찍기만 즐겼다. 나대로의 스케줄로 여유로운 우동투어를 원한다면 우동택시를 대절하는 방법도 있다.


01


03


02


04

01 쾌활한 저 우동 가이드상를 만날 확률은 50%이다. 02 2곳 가게에서 4가지 맛을 보았다. 03, 04 270년 이상 가꾸어져 온 리츠린 공원의 소나무.

리츠린 공원의 매력에 빠지다

우동투어를 마친 버스는 우리를 리츠린 공원으로 안내했다. 소규모 일본식 정원은 지나친 인공미와 결벽증이라도 있는 듯한 정갈함 때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왔던 터라 별 기대 없이 들어섰지만 5분도 되지 않아서 공원의 매력에 푹 빠졌다.

리츠린(栗林)은 '밤나무 숲'이라는 뜻과 달리 실제로는 1,400그루의 소나무가 공원 전체를 덮고 있다. 리츠린 공원(栗林公園)은 1745년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정원으로 6개의 연못과 13개의 인공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러보는데 2시간이 걸리지 않을 규모로 200년 이상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소나무의 가지 하나하나, 돌과 연못, 그 연못을 가로지르는 곳곳의 아름다운 다리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걸음걸음 마다 달라지는 장면들을 즐기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고 만다.

다카마츠 항과 시내 상가 둘러보기

리츠린 공원 투어를 마친 우리는 우동버스의 종점인 다카마츠역에서 내렸다. SHIKOKU SMILE STATION이라는 애칭에 웃는 모습을 하고 있는 다카마츠 역사(驛舍)를 보고는 근처 다카마츠항의 나오시마행 선착장에 들른 다음 숙소까지 걸어가며 시내 투어를 하기로 했다.





미야노우라 항구의 빨간 호박, 츠츠지죠 근처의 노란 호박

세토 내해를 바라보고 있는 다카마츠 항은 물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하다. 항구 한편에는 바다를 조망하며 커피 한잔을 할 수 있는 호텔과 고층 빌딩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옛 성터자리는 바닷바람을 쓸쓸히 맞고 있다. 항구에 다가가자 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는 카가와현 답게 곳곳에서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오오마키 신지'의 작품, 8미터가 되는 [Liminal Air –Core–]라는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시내 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영국 팝아트 작가 '줄리안 오피' 작품을 인도(人道) 위에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다.

시내 숙소에 가까워지면서 사방으로 뻗어 있는 상가로 들어섰다. 그 중 미나미신마치(南新町) 상가는 길이가 2.7㎞로 일본에서 가장 크다고 한다. 걸음을 붙잡는 수많은 가게들과 편의점, 슈퍼마켓을 들러 쇼핑을 즐기다 보니 어느 듯 저녁을 넘어 밤으로 가고 있었다.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서 숙소로 돌아가 노천탕에서 피로를 풀고 1일차 여정을 마무리 하였다.

나오시마에서 안도 타다오를 만나다

나오시마(直島)는 다카마츠항에서 카페리로 1시간이면 닿는 섬이다. 1917년부터 구리제련소가 들어선 후 1980년대 들어 제련산업이 쇠퇴할 때까지 환경이 황폐화되자 주민들이 섬을 떠나 노인만 남은 섬이 되었다. 하지만 교육출판기업 베네세 홀딩스가 섬 일부를 사들이고 '안도 타다오'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여러 나라 예술가들을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 프로젝트에 참여케 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예술작품을 조화시키고 지역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원주민들이 다시 귀향하여 환경과 주거지의 복원에 더해 예술까지 입힘으로써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섬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우리는 오전 10시대의 두 번째 배를 타고 들어가 오후 5시 마지막 배를 타고 나오는 짤막한 일정이다. 미야노우라 항구에 가까워지면서 부둣가의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빨간 호박' 작품이 점점 뚜렷해진다. 하선 후 마을버스 타는 것을 잠시 늦추고 항구 주변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항구에서 바라보는 언덕 위의 오래된 마을을 눈과 카메라에 담았다.

이우환 미술관



마을버스라고 할 수 있는 100엔 요금의 나오시마 버스는 입석 손님까지 복도를 메웠다. 꼬불꼬불 마을 곳곳을 돌며 많은 여행객을 내리고 태우더니 '츠츠지죠'라는 곳에 도착. 여기가 베네세하우스와 여러 미술관을 순회하는 무료버스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많은 여행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저 멀리 방파제(?) 위 한가로운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 작품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옮겼다. 모두들 순환버스를 타고 간 탓에 호젓이 노란 호박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섬을 순회하고 있는 프랑스 연인과 우리 밖에 없어 서로 사진을 찍어 주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망중한을 즐겼다.

순환버스는 베네세 박물관, 지중미술관, 그리고 한국 작가 이우환 미술관을 들른다. 드디어 안도 타다오의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이 품은 예술작품들을 차례차례 만났다. 세계적인 건축가, 예술가들이 빚어놓은 작품의 심오한 뜻을 알 리 없건만, 지금까지도 그때의 차분하고 유쾌한 감정이 살아날 정도로 인상이 깊었다. 입장료와 기념품,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 더하면서 주머니를 가볍게 하지만, 나오시마는 새롭고 특이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 1~2박을 하며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을 재생 프로젝트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해안 곳곳에서 자연과 예술 작품과 여유롭게 조우하며 즐길 수도 있다. 안도 타다오는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다. 원주의 뮤지엄 '산', 그리고 제주도의 '본태 미술관'에서 비슷한 듯 또 다른, 그와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다. 나오시마 여행을 마치고 저녁 무렵 다카마츠 시내로 다시 돌아 왔다. 짤막한 일정으로 다카마츠에도 나오시마에도 아쉬움이 묻어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동하면 주저하지 않고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여행지가 추가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2박 3일간의 다카마츠 여행을 마무리하였다.

여행팁

다카마츠시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항버스 왕복승차권, 리츠린 공원 무료입장권, 쇼도시마 페리 왕복승선권을 쿠폰북 형태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 1인당 3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자유 여행이 취향이신 분, 우동을 좋아하는 분, 시장 구경을 좋아하는 분, 차분하게 예술작품 감상과 힐링을 원하시는 분께 다카마츠와 나오시마 여행을 추천 드린다. **O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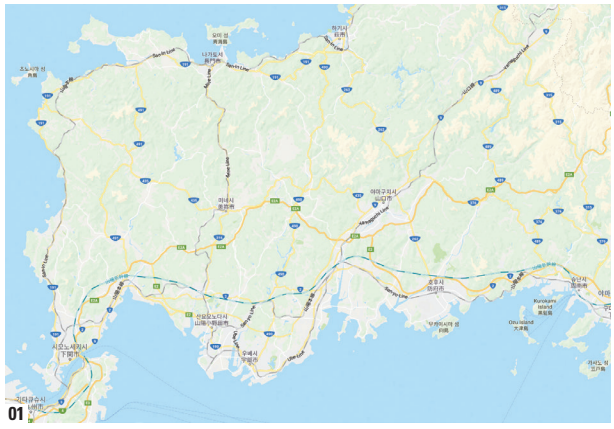


일본 소도시 여행의 즐거움

글. 김홍익
OLP 8기

평소 패키지여행보다 혼자서 일정을 짜고 숙소를 정해서 하는 여행을 선호한다. 장거리 비행이 힘들다고 느껴진 후부터 일본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다니고 있다. 2016년 오키나와에서 처음 운전대를 잡은 후 렌터카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해 진 후 더 자주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물론 처음엔 오른쪽 운전대에 앉아 운전하는 것이 어색하고 겁도 났다. 하지만 의외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운전대를 잡으면 "좌작(좌회전은 작게), 우크(우회전은 크게)"라고 계속 주문을 외우기 때문인가 보다.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일본의 대도시는 출장과 주재원 등의 기회가 있어 자주 접했고 자주 찾는 식당까지 있을 정도인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부터 나리타나 간사이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때 공항의 번잡함으로 인해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성격상의 문제도 있지만 말이다. 또한 인천공항처럼 나리타나 간사이공항은 도심에서 너무 멀다. 교통비도 비싸다.

마침 일본 소도시로 취항하는 저비용항공사(LCC)가 늘어나면서 보다 싼 가격에 번잡함과 복잡함을 벗어나서 또 다른 일본을 경험하면서도 대도시의 풍요로움 또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소도시 여행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첫 소도시(소도시라고 부를 만큼 작지는 않은 도시들이지만) 여행은 큐슈 동북쪽에 위치한 기타큐슈시로 일본에 입국해서 혼슈의 시모노세키와 하기를 잇는 일본 서해안 191번도로를 달리는 경로이었다.



01 일본 서해안의 191번 해안도로 일부 02 기타큐슈시의 유적지인 고쿠라성 전경





03

03 하기시의 막부시절 무사가 살던 성 밑 마을 유적지와 일본 내 고급자기인 하기야키





기타큐슈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는 아니지만, 신칸센이 정차하는 고쿠라역이 있는 대도시로 큐슈와 혼슈를 잇는 지역에 자리 잡은 공업도시이다. 신칸센으로 30분이면 후쿠오카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일부러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도시는 아니었다. 후쿠오카공항은 국제공항이지만 도심에서 가깝다. 이런 편리한 후쿠오카공항에서 가까워서 그런지 기타큐슈공항은 국제선 취항이 거의 없어 국제선 공항이 국내선 공항보다 더 작다. 그러나 일본 국내선의 이착륙은 매우 빈번해 국내선 이용객은 매우 많다. 국내선 상점을 이용하면 국내 지인들을 위한 선물을 구입할 수 있어 굳이 시내에서 선물을 사서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기타큐슈공항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일본 소도시 여행의 매력은

소도시에 위치한 공항을 이용하면 입국과 출국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출국 수속을 위해 2-3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만큼 가용 시간이 늘어나고 공항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기타큐슈 공항을 5번 정도 이용했는데 어떤 때는 30분 만에 캐리어까지 챙겨 나온 경우도 있었다. 얼마 전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2시간 이상 출국 심사대기를 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다시는 뉴욕에 가고 싶지 않았다.

소도시 여행의 두 번째 매력은 유명 관광지나 대형 쇼핑몰도 현지인처럼 한적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 일본에 갔을 때 동경의 시부야나 오사카의 도톤보리에 몰려다니는 인파에 놀라서 주눅이 들기도 했고, 신주쿠역이나 난바역의 혼잡함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넋이 빠졌던 것도 하나의 추억이긴 하지만, 이젠 왠지 (나이가 들어서 인가?) 복잡함과 번잡함이 싫다. 한적함과 여유로움이 좋다. 게다가 일본의 소도시 주요 역 중심엔 웬만한 유명 백화점의 지점이나 대형 쇼핑센터가 위치해 잠깐 짬을 내어 대도시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쇼핑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차로 이동할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최근 등장한 스타필드나 롯데와 현대 아울렛 같은 거대 쇼핑몰을 찾아서 구경할 수도 있다. 일본 소도시의 근교에는 대부분 이온몰이나 지역기반의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도시여행의 세 번째 매력은 일본 현지인의 생활상과 지역 특색을 소소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근대에 들어서 큰 내전을 겪지 않은 덕분인지 일본 소도시 인근에는 옛 에도시대의 건물이나 유적이 그대로 남아 현재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종종 소에도(小江戸)라고 옛 에도시대의 건물이 그대로 보존된 거리를 관광중심지로 활용하는 지역 도시를 만날 수 있다. 과거 봉건영주 시대의 성뿐만이 아니라 성하(城下)마을이 건축 초기 그 모습을 유지해 주요 유적지나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고 있다. 기타큐슈공항을 통해 방문했던 기타큐슈시(대도시임)의 고쿠라성도 볼만하지만 시모노세키시


01


02

01 일본 복어의 집산지인 시모노세키 한 신사의 복어상 02 복어 맛집 순락관의 미니 복세트

나 하기시의 성하마을 유적지도 과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둘러볼만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소도시 여행의 매력은 그 지방만의 특산품이나 맛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전국의 유명 맛집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화 되어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품질의 맛집 음식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일본의 프랜차이즈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때문인지 유명 맛집의 프랜차이즈점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지방의 맛집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소도시 여행을 통해서는 아직 전국화되지 않은 맛집에서 그 맛집만의 고유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례로 기타큐슈시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시모노세키시는 일본 복어의 집산지인데 프랜차이즈화 되지 않고 원래 자신만의

맛과 전통을 지키는 맛집들이 많다. 호텔 프론트의 소개로 들렀던 시모노세키 순락관은 복어 풀코스가 저녁에 1인당 10만 원 이상 하지만, 미니코스는 6-7만 원대의 가격으로 점심이나 저녁에 모두 즐길 수 있다. 음식의 맛은 물론 복어를 요리해 담아낸 그릇도 수준급이다. 입과 눈이 모두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 반드시 방문해 보라고 추천하는데 예약은 필수다.

맛있게 먹고 나서 둘러볼 곳은 명승지. 일본 서해안의 191번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경치 좋은 곳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소개할 곳이 일본의 해상알프스라는 청해도이다.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이 만든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 울릉도에서 볼 수 있는 코끼리 바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해도이다. 한적한 어촌 마을 길가에 자리 잡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곳인데 바다 밑은 일본에서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라 방문할 때마다 바닷속 경치를 즐기려는 일본 다이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거대한 쇼핑타운과 시끌벅적한 흥겨움, 그리고 다양한 맛집들을 기웃거리는 대도시 여행도 즐거움이 있겠지만, 한적하게 지역 맛집과 숨어있는 명승지를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재미들이 모여 있는 일본 소도시여행을 OLP 원우 여러분에게 권해본다. 다음 번엔 일본 소도시 여행의 참맛을 알게 해준 큐슈 서쪽에 자리 잡은 사가를 소개하겠다. **OLP**

바다의 알프스라는 191번 도로변 명승지 청해도의 코끼리 바위등



형제의 일본 여행기



글. 유복환
OLP 11기
전 월드뱅크 한국이사

2018년 11월, 70세의 형님과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났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형제들과 의좋게 해외여행을 다니시며 즐거워하시던 기억이 떠올랐다. 형님은 일본과 중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해서 한중일 관련 문화와 역사에 대해 해박하다. 그래서 형님하고 종종 일본여행을 함께한다. 이번에는 고대 일본과 관련이 있는 와카야마(和歌山) 지역을 방문했다. 메이지 유신의 산실이었던 사쓰마(薩摩-가고시마)와 조슈(長州-하기)지역 등에 이어 형님과 함께 하는 네 번째 일본 여행이다.

간사이 공항에서 차로 와카야마 구마노(熊野)로 향했다. 일본의 초대 덴노(천황) 진무(神武)는 당시 일본의 중심지인 나라분지를 기습 공격하기 위해 와카야마 반도 남단의 구마노에 상륙하였다. 나라분지까지는 첩첩 산길이었다. 진무와 원정 군사들은 첩첩 산중에 가로막혀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정벌군이 어려움에 처하자 다리가 세 개인 까마귀, 즉 삼족오(三足烏) 가 앞장서서 길안내를 하였다. 삼족오의 도움으로 진무 일행은 산과 산을 넘어 나라분지가 내려다보는 지역에 도착한다. 나라분지의 호족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공격으로 항복을 받아 진무는 야마토(大和) 왕국을 건국하고 초대 천황이 되었다는 신화이다.

고구려의 주몽이나 백제의 무령왕, 발해의 대조영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 나오는 깃발에도 삼족오는 등장한다. 일본 건국설화를 고고학적으로 해석하면 백제계의 무리들이 삼족오 신앙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고대 일본을 건국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번 여행은 삼족오 신앙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일본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처음 도착한 가고시마에서 나라분지를 정복하여 고대 일본을 건국한 길을 따라 가는 것이다.

일본 축구 대표 선수의 유니폼에도 삼족오가 보인다. 두 다리는 지면을 밟고 있고 또 하나의 다리는 축구공을 밟고 있다. 예전에 일본 친구에게 왜 삼족오를 축구대표팀 상징 마크로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친구의 대답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발이 세 개면 발 두 개 보다 공을 더 잘 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뭔가 석연치 않았는데 구마노에 와서야 그 비밀이 밝혀졌다. 구마노에 오니 곳곳에 삼족오 깃발과 기념품이 보인다. 삼족오를 모시는 신사도 보였다. 삼족오는 일본 덴노의 전통 예복에도 보인다. 삼족오 문양은 천황 가의 상징이기도 하다. 퇴위를 선언한





와가야마 삼족오 : 삼족오(三足烏)가 일본 축구국가대표팀의 엠블럼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일본의 상징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실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현재의 덴노(헤이세이)는 자신과 일본 천황 가에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문명 연구가인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교수는 한국과 일본을 유년기를 함께 보낸 '쌍둥이 형제'로 비유한다. 그러나 유년기인 고대사부터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두 나라는 서로 으르렁대기 바쁘다. 임진왜란과 한일합방, 그리고 1990년 대 후반 IMF 위기를 맞기 직전에도 한일 간 감정의 골은 깊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하여 일본이 크게 반발했다. 일본의 총리가 '독도는 우리땅이다'라는 망언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방법도 딱히 없는데 상대방 국가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모욕만 주고 말았다. 오히려 일본이 '두고 보자, 저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테니….'하고 벼르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한국이 어려워지자 일본은 빌려준 자금을 연장해주지 않고 제일 먼저 회수하여 외환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급박한 순간에 한국정부는 IMF에 가지 않으려고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하였다.

2015년 초, 일본 동경에 있는 국제기구인 ADBI에 부임했을 때도 두 나라의 사이는 얼음골처럼 냉각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먼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올 필요 없다.'라는 발언은 일본을 자극했다. 일본은 '일국의 리더로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총리가 반박하는 등 거칠게 반발하였다. 그 여파로 당시 일본을 휩쓸었던 한류의 바람은 순식간에 지워졌다. 케이팝의 인기는 물론, 회식을 하면 한국식 고기구이 집이나 소주와 막걸리가 인기였는데 그런 경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동경 신주쿠에 한국인 가게가 밀집한 신오쿠보가 서울의 명동거리처럼 한류영향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 주말마다 신오쿠보 거리에서 벌어지는 우익들의 혐한 데모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다. 매출도 급격히 줄어 줄줄이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

대체로 일본사람은 한국 사람이 과거사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반일이구나'라고 생각한다. 한 일본친구가 진지하게 물었다. "왜 한국 사람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삼



은 것에 그토록 분노하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덕택에 한국이 근대화된 게 아닌가?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뒤 철도와 도로, 학교를 지어준 혜택으로 조선은 잘 살게 되었고, 위생수준도 높아져 인구도 늘었다. 이것은 팩트이고 고마운 일인데 왜 원망만 하나?" 일본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생각이 들 법도 하다. 그러나 "'한국이 잘 살게 되었으니 그 점은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은 한국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했다. "예를 들어 몹시 가난한 집의 얌전한 처녀를 건달이 납치하여 자기 여자로 만들고, 밥도 먹이고, 좋은 옷도 사주었다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나? 그 처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잡혀와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데, 건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인생인가? 비참하고, 한 많은 인생이지". 그러나 그 친구는 한국 사람의 이런 생각을 잘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의 경험을 들은 형님이 말했다. "과거의 식민지 역사에 대해 두 나라의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일본의 조선 주둔군 사령관 우쓰노미야는 조선을 '자기 의지에 조금 어긋나게 결혼한 여성'으로, 일본을 '거칠고 사려깊지 못한 남편'으로 비유했다. 3.1 만세운동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조선인이 전국적으로 격렬히 저항하자 그는 윤치호를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선을 아내, 일본을 남편으로 비유하였다. '조선에게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바람직한 남편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돈 많고 멋있는 엉

클 샘(미국)이 있지만 조선을 정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도 첩으로 삼을 것이다. 조선은 거친 남편과 별거를 원하지만 혼자서는 살아나갈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남편과 타협하고 사는 게 최선이 아닌가'하고 말했다. 이 대화내용이 조선 지배에 대한 현재까지 일본사람 대다수의 해석인 듯하다."

내가 말을 이었다. "문제는 '자기 의지에 조금 어긋나게 결혼'하였다는 전제는 한국 사람과는 다른 인식인 거죠. 조선은 일본제국주의 건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합방 당했고, 저항을 해도 폭행하고 겁박하여 죽지 못해 함께 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조선은 고대로부터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전수했어요. 건달의 선대가 글을 모를 때 처녀 집안이 글도 가르치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나중에 힘이 세어졌다고 그 집안을 통째로 삼킨 셈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 덕분에 잘살 게 된 것이 아니냐.' 하며 '한국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일본사람의 인식과 한국 사람이 느끼는 심정은 대한해협만큼이나 간격이 있지."

날이 어두워져 와카야마의 남단 작은 섬에 위치한 우라시마 호텔에 묵었다. 섬 전체가 호텔이어서 리조트 전용 페리를 타고 들어가야 했다. 그 호텔의 명물은 동굴온천, 망귀동(忘帰洞)이다. 집에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동굴이다. 예전 이 지역의 영주가 이곳의 경치에 매료되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과연 몸을 뜨거운 탕 속에 두고 동굴로 철썩대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망망대해 태평양의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니 오감이 즐거워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온천 후 아침식사를 하고, 호텔 안에서 150미터가 넘는 아시아에서 제일 길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니 섬의 정상 전망대로 가는 산책길이 나온다. 일본과는 과거사와 독도가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형님에게 물었다. "일본 사람들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국제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면 될 터인데 한국은 왜 국제재판소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나? 뭔가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외교관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형님이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해 주고, 마지막에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다. "독도는 우리땅인데 왜 그걸 재판에 가서 따지겠니? 누가 내 마누라를 두고 '너의 아내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고 재판정에서 내 마누라인지 아닌지 따지겠니?" 형님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 졌다.


와카야마 망귀동 사진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그리고 떠있는 주변 섬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항구는 방파제로 잘 둘러 쌓여있어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거친 태풍에도 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게끔 되어있다. 일본이나 우리는 싫다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좋든 싫든 이웃으로 살아야 한다. 양국의 정치인들은 과거사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대감을 조장하여 지지율을 올리려는 발상은 퇴행적이다. 한일 두 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협력이 점점 중요하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처리해가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일본을 방문하여 해동제국기를 쓴 신숙주는 죽기 전에 성종에게 일본과의 화평관계를 깨트리지 말도록 유언했다. 송무백열(松茂柏悅)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로 가까운 이웃은 멀리 사는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다. 한국과 일본은 함께 번성하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일본 여행이었다. **OLP**

OLP

Opinion Leaders Program

OLC News

OLP를 말한다

기수별 활동 소식

1기	1기 김영갑 원우 : 2018년 2월 24(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기 이상철 원우 : 2018년 6월 9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기 이준구 원우 :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국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기	2기 손희식 원우 : 2018년 12월 2일(일)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3기	3기 구자관 명예회장 : ㈜삼구아이앤씨 사옥을 이전하셨습니다. 3기 김준수 원우 : 2018년 10월 3일(수)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3기 박기호 원우 : 한경매거진 캠퍼스잡앤조이 편집부문 대표로 취임하셨습니다.
4기	4기 주철수 회장 : 신한은행 부행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4기 김봉국 원우 : 2018년 9월 16(일)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5기	5기 신제윤 수석부회장 : 2018년 12월 22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5기 김승운 원우 : 2018년 11월 11일(일)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6기	6기 이장세 원우 : 2018년 11월 10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7기	7기 김근수 원우 : 신용정보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7기 김근수 원우 : 2018년 6월 16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8기	8기 이의철 원우 : 파주 C.C 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9기	9기 송문성 회장 : 주안 dh비즈타워 홍보관을 개관하셨습니다. 9기 박상주 원우 : 국무총리실 소통메시지비서관(연설비서관)으로 취임하셨습니다. 9기 최승욱 원우 : 뉴스웍스 편집국 부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10기	10기 허인구 원우 : G1 강원민방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12기	12기 김효준 회장 : 2018년 11월 18일(일)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2기 민성기 원우 : 2018년 12월 1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2기 박성근 원우 : 신용보증기금 동대문 지점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12기 윤영미 원우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대표로 취임하셨습니다. 12기 이시봉 원우 : 한성기업 부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12기 최희남 원우 :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12기 추일환 원우 : 추일환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하셨습니다.
16기	16기 이상혁 원우 : 세계일보 사회 2부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16기 정영오 원우 :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전보되셨습니다.
17기	17기 손병관 원우 :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18기	18기 김기동 원우 : 세계일보 사회부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20기	20기 이동주 원우 : LG하우시스 홍보 및 대외협력담당 상무로 승진하셨습니다. 20기 이창재 원우 : 2018년 11월 3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21기	21기 김주원 원우 : 김주원 변호사 사무실을 설립하셨습니다.

OLP 23기 입학안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 -

모집인원

- 50명 내외

지원자격

-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 공 · 사기업체의 임원, 간부
- 정부기관 고위 공무원
-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인사
- 법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항시 가능
- **장 소** 경제대학원 교학과 Opinion Leaders Program 사무실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2호, 우편접수 가능

제 23기 주요 학사일정 및 강의시간

- **입 학 식** 2019년 9월
- **강의기간** 2019년 9월 ~ 2020년 1월
-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글. 김길수
OLP 22기 회장
DBS 싱가포르은행 부행장

지난 1월 15일 수료식을 거쳐 4개월간의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OLP 22기 29명이 OLC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언론과 기업이 함께하는 OLP 과정은 입학식후 이어진 원우 소개에서 그 이질적인 분위기가 특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거듭할수록 처음 시작 때의 서먹서먹함을 뒤로하고 원우들 간의 친밀감이 쌓여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나 졸업여행 등을 비롯하여 강의실을 벗어나 이루어진 단합회동으로 원우들 간의 동기애를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언론과 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두 집단이 모여 우리가 처한 여러 경제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경제적 상황에 대해, 업계 최고의 강사진으로부터 그분들의 다양한 연구업적을 공유하는 혜택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하여도 무방할 정도의 식견과 경험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배움의 자세로 함께 달려온 동기원우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나, 우리22기가 원활히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경제대학원 학장님, 그리고 우리가 약간이라도 흐트러질 조짐이 보일 때마다 항상 온 힘을 던져 이끌어 주신 정재식 교수님, 곽노선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2기는 OPL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OLC의 일원이 됨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지난해 9월 입학식에서 어 진 OLC 회장님의 환영사에서 말씀하셨듯이 OLP가 단순히 4개월 과정의 OLP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Opinion Leaders Club이라는 우리사회의 긍정적 여론 공감대 조성에 공헌할 선도적 모임체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과정이었습니다.

OLP과정의 특별함과 출중함을 우리 강의를 직접 이끌어 주신 OLC 선배 강사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접했던 훌륭하신 선배 강사님들의 애정 어린 강의를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OLP 22기도 막내로 OLC 회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22기가 앞선 선배 기수대비 인원수는 적으나 OLP 과정을 통해 맺은 굳건한 팀 정신으로 자랑스런 OLC 구성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OLC에서의 많은 활동 기대됩니다. **OLP**



글. 윤영두
OLP 22기 사무총장
SK E&S 상생협력팀장

"22기 기업분과 사무총장은 윤영두 팀장으로 하죠"

헉! 메마른 목구멍을 적시며 시원하게 위장으로 향하던 맥주가 턱하니 걸려버렸다. 10월 11일 목요일 저녁, 졸린 눈을 껌뻑이며 인천대 손양훈 교수님과 서강대 전성훈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난 이후 '카페 테이스트'에서 3교시(?)를 시작한 자리에서다. 초등학교 반장을 한 이후 감투라고는 군대 분대장밖에 달아보지 못한 나에게 'OLP 사무총장'이라니 22기 원우님들의 상태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OLP 22기는 9월 13일 입학식 이후 한 달 만에 사무총장을 임명했고, 2차 합숙세미나 이후인 11월에 김길수 회장님과 이광엽 언론분과 수석부회장님, 윤평옥 기업분과 수석부회장님이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취임하셨다. 낙락장송 밑에 앉아 음풍농월하는 신선 같으신 정재식 교수님은 "22기는 걱정 없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셨고, 촉한의 유현덕이 현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분 같으실 곽노선 교수님도 매번 맞장구를 쳐 주셨다. 역시 무림의 고수는 고수셨다. 교수님들의 장담처럼 OLP 22기는 연천 허브빌리지에서의 1차 워크샵, 이븐데일CC에서의 2차 워크샵, 여수와 남원, 전주와 고창을 평정한 2박3일의 졸업여행까지 함께하면서 의기투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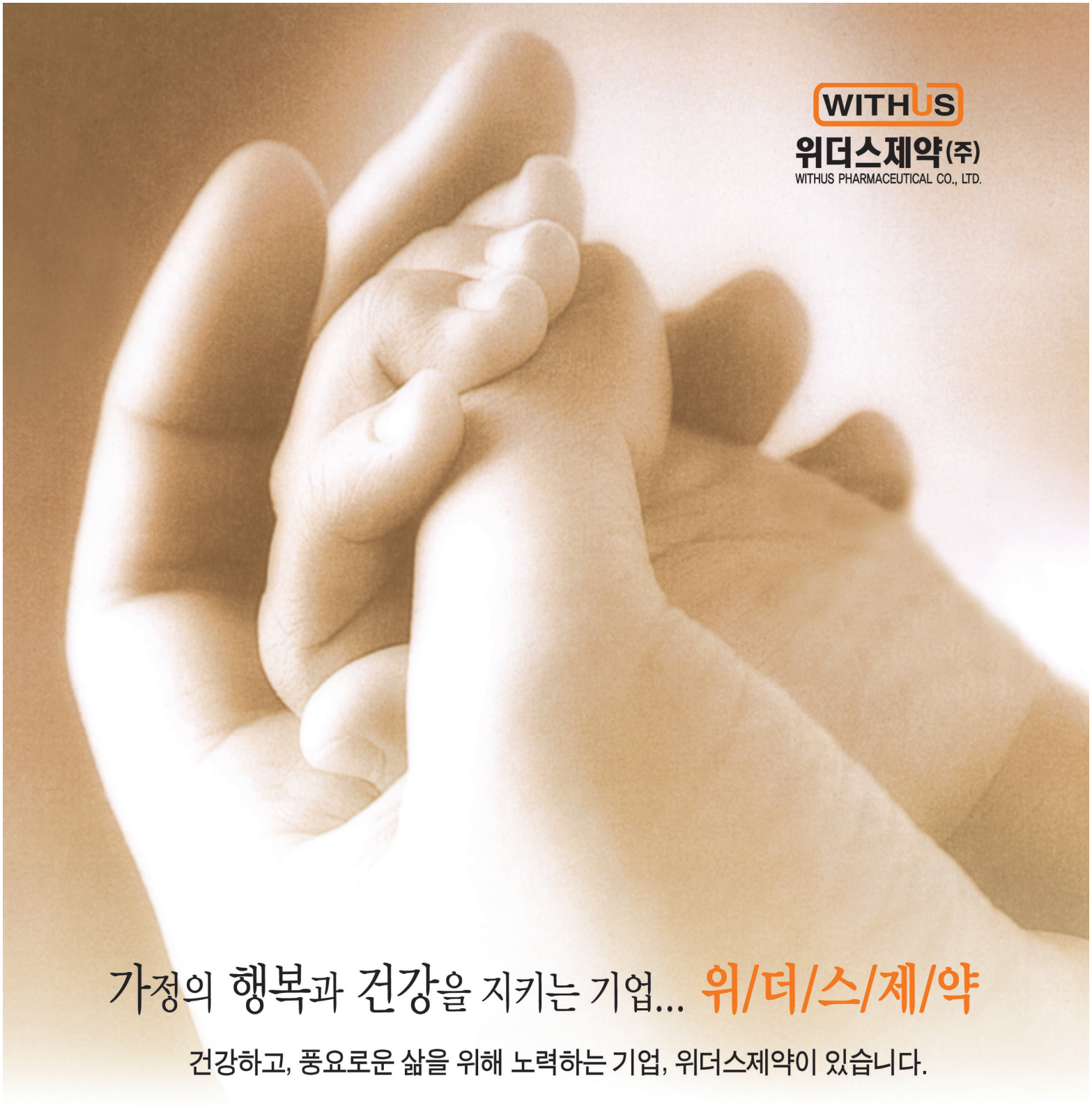
졸업여행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는 원우님의 말씀처럼, "거친 바다는 훌륭한 선원을 만든다"는 격언처럼 이제 OLP 22기는 OLC 가입을 포함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

OLC 선배님들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린다.

OLC 선배 말씀이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려야할 것 같다. OLP 강의실 벽을 가득 채운 선배 원우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20대 청년시절부터 뵈었던 언론계 선배들의 반가운 얼굴들과 해후하게 되었다. 2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 정치계를 좌지우지했던 기라성 같은 분들이 OLP 각 기수마다 한두 분씩 자리하고 계셨다. 20대에 여의도 정당의 기자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로서는 나를 키워주시고 내 청춘을 함께 해 주셨던 가족 같은 분들이시다. 이제 OLC의 한 가족이 되는 만큼 OLC의 울타리 안에서 잠시 쉬었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소망한다.

OLP 22기 기업분과 사무총장을 큰 잘못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부족한 사무총장을 탓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온몸으로 함께 해 주신 OLP 22기 원우님들 덕분이다. 이 기회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OLP 22기를 잉태하고 성장시켜 주신 정재식 교수님과 곽노선 교수님, 궂은 일을 마다않고 항상 미소로 앞길을 열어주신 박석진 조교님과 염시진 조교님, 신연진 조교님, 헐크도 장동건으로 변신시켜 주시는 이광일 에덴스튜디오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바쁜 사업일정 속에서도 수차례 비장의 꿀팁을 전수해 주신 20기 유재중 사무총장님, 금쪽같은 인맥을 통해 졸업여행 경비의 획기적인 절감은 물론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신 21기 조남규 형님께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OLP의 깃발 아래 하나로 나아가는 OLP 22기 원우님들! OLP를 위해 헌신하며 지원해 주시는 교수님과 조교님들! OLP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선배님들의 후배사랑! 이것이 OLP다. **OLP**



세상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술, 생명과학
위더스제약은 새로운 신약개발과 보급을 통해 수천 년간 이어져온 질병으로부터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부 온도는 DOWN
자외선 차단은 UP

즉각적인 피부 쿨링 및 열 받은 피부 자극 개선 및 진정



유브이 퍼펙트
에어쿨 선젤
SPF 50+ PA++++

*한국피부과학연구원/대상자 : 성인 여성 21명/2019.01.10~2019.01.30/개인차 있을 수 있음

SNP
Shining Nature P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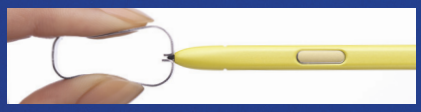
SAMSUNG

Windows 10



슈퍼 노트북

삼성 노트북 Pen S



| 업그레이드 S펜 |

다양한 펜촉으로 필기를 다양하게
그림은 더 세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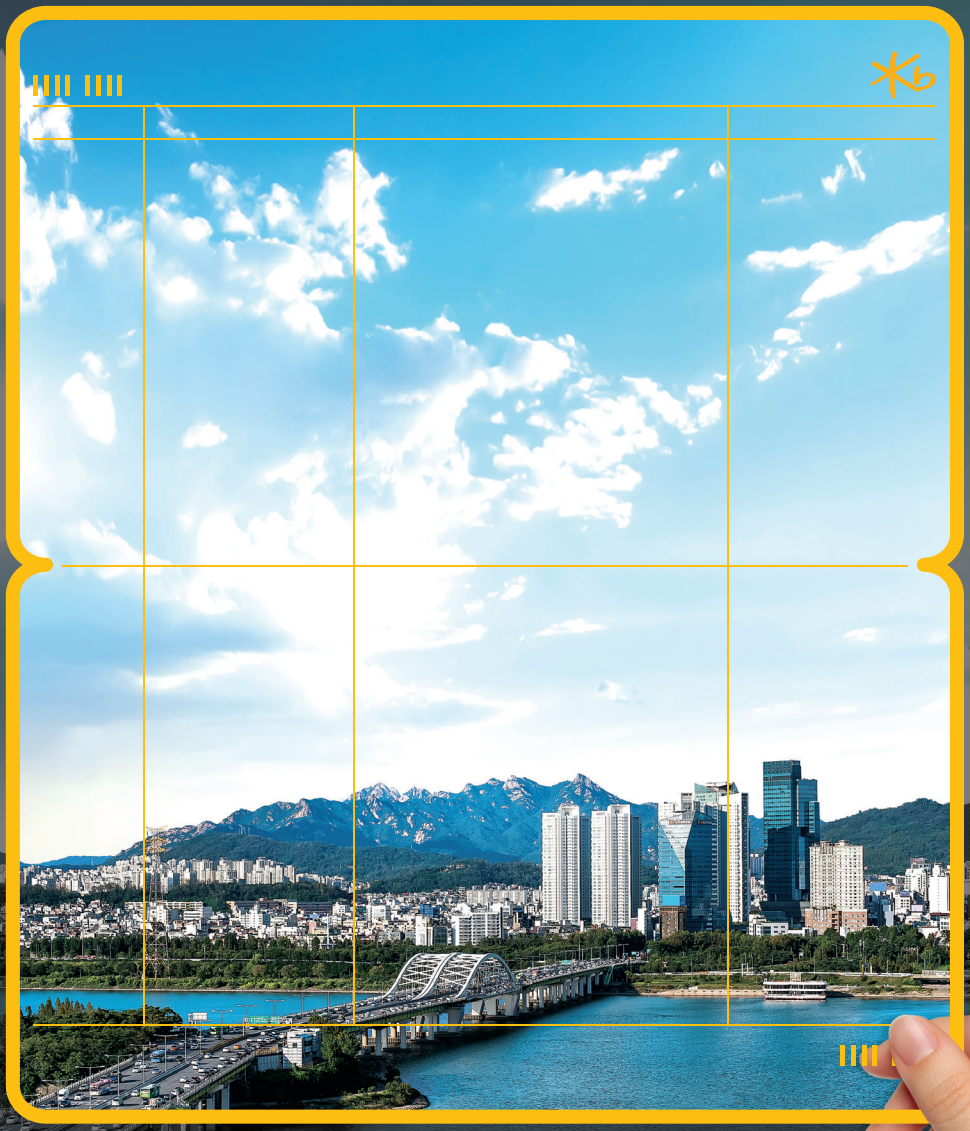


디지털 펜 : 모든 것이 가능한 펜 * 화면은 체험판 제품으로 표시되었으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Windows Store 앱은 별도로 판매되며, 앱 종류와 사양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KB금융그룹 | 국민의 행복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하늘의 색을 바꾸다

KB맑은하늘적금 | KB맑은하늘공익신탁 출시



KB맑은하늘적금

1계좌당 1천원씩 기부하여 맑은하늘 숲 조성

[우대 금리 제공] 종이 통장 미발급, 대중교통 미션 달성 시 등
[무료 보험 제공] 대중교통/자전거 상해 관련 최대 2억원 보장

KB맑은하늘공익신탁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보일러 기부 사업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고객이 신탁보수(선취)의 10%를 **기부하는 공익적 금융상품**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KB맑은하늘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KB맑은하늘공익신탁] ※ 상품 가입전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발생하는 선취보수(1%)의 10%를 환출받아 기부하는 상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0308호(2019.03.13)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1084호 (유효기간 : 2019.12.31까지)

KB 국민은행



국내 최대 클라우드 비즈니스 파트너 메가존클라우드

2018년 메가존클라우드는 다양한 수상 및 인증을 받으며 국내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0여개 고객사는 메가존클라우드가 남긴 그 혁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KIPFA 주최 '에코어워드 비즈니스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 중소벤처 기업 협회 '2018벤처천억기업' 선정
- 머니투데이 주최 '2018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2년 연속 수상
- 시사매거진 주최 '2018코리아 혁신 대상' IT 부문 대상 수상
- SW전문기업 직원 역량강화 부분 최우수상
- ISMS / ISO 27001 인증 획득

SAMSUNG · LG Electronics · SK telecom · 롯데면세점 · DOOSAN · 하나투어
SK planet · LOTTE Homeshopping · LS산전 · ASIANA AIRLINES · SPC · HYUNDAI ELEVATOR CO., LTD.
HYUNDAI 한섬 · I.I mall · E·LAND · KFC · NU SKIN · igaworks
한국스마트카드 Korea Smart Card · SM ENTERTAINMENT GROUP · yanolja · 직방 · 우아한형제들 · 여기어때

메가존클라우드(주)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46 GALA빌딩 | megazone.com | cloud@megazone.com | 1644.2243